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스포츠복지지수 개발
및
유용성 검증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권 유 진

스포츠복지지수 개발
및 유용성 검증

지도 교수 박 일 혁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권 유 진

권유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_____ 권 순 용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용 호 _____ (인)

위 원 _____ 박 일 혁 _____ (인)

초 록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문헌고찰을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주요요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였다. 셋째로,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스포츠복지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최종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로, 개발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적용하여 지수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다른 형태의 요인 가중치를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복지지수와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위 연구 절차의 결과로 스포츠복지지수는 총 5개의 주요요인 대상(.372), 시설(.372), 프로그램(.089), 인력(.047), 제도(.119)와 13개의 세부요인의 구조로 도출되었다. 계층적분석방법을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의 모형은 동일 가중치 모형 및 델파이조사 중요도 모형과 비교하여 보다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는 평균 100.0, 표준편차 4.45에서 전라남도(109.5), 전라북도(108.9), 경상북도(104.4), 강원도(103.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92.1), 부산(95.3), 제주(95.7), 인천(95.7) 등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스포츠복지지수는 9개 특별·광역시(평균 97.09)와 8개 도(평균 103.43)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스포츠복지지수는 지역별 평균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r=0.70$)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기대수명과 부적

상관관계(r=−0.46)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포츠복지 환경이 적절한 지역에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반대로 보았을 때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건강 예방보다는 치료 및 사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배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미래 의료비 절감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형성을 위해 스포츠복지 사업의 분배 및 진행에 대하여 큰 틀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스포츠복지, 스포츠복지지수, 지수 개발,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AHP)

학 번 : 2019-27169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II. 이론적 배경 9
1. 스포츠복지의 개념 9
2.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 12
3. 지수의 개발 14
4. 스포츠 관련 지수 22

III. 연구 방법 25
1. 문헌고찰 26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7
3.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31
4. 지수 개발 및 유용성 검증 37

IV. 연구 결과 40
1. 스포츠복지의 개념 40
2.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52
3.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65
4.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 검증 73

V. 논의 94

VI. 결론 및 제언 98
1. 결론 98
2. 제언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14

표 목차

<표 III-1> 계층적분석방법의 장점과 단점 31
<표 III-2> 계층적분석방법 쌍대비교 척도 34
<표 IV-1>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대상, 목적) 43
<표 IV-2>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수단, 개념) 44
<표 IV-3>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재구성 45
<표 IV-4>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 조사 46
<표 IV-5>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수정.....48
<표 IV-6>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 조사 48
<표 IV-7>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50
<표 IV-8>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 응답 결과 54
<표 IV-9>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 및 편성.....56
<표 IV-10>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별 세부요인 중요도 평가표.....56
<표 IV-11>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별 점수 57
<표 IV-12>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별 점수 58
<표 IV-13>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별 점수 59
<표 IV-14>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별 점수 60
<표 IV-15>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별 점수 61
<표 IV-16>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62
<표 IV-17>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63
<표 IV-18>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64
<표 IV-19>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 결과 65
<표 IV-20>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66
<표 IV-21>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66
<표 IV-22>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67
<표 IV-23>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67
<표 IV-24>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68
<표 IV-25>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68
<표 IV-26>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69
<표 IV-27>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69
<표 IV-28>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70
<표 IV-29>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70
<표 IV-30>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계층적분석방법) 71
<표 IV-31> 스포츠복지지수의 세부요인별 적용 지표 73
<표 IV-32> 가중치 산출 방법별 스포츠복지지수 값 비교.....74
<표 IV-33> 가중치 산출 방법의 비교.....75

<표 Ⅳ-34> 지수값 변형 산식 76
<표 Ⅳ-35>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전체) 77
<표 Ⅳ-36>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대상 요인) 79
<표 Ⅳ-37>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시설 요인) 81
<표 Ⅳ-38>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프로그램 요인) 83
<표 Ⅳ-39>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인력 요인) 85
<표 Ⅳ-40>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제도 요인) 87
<표 Ⅵ-1>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101
<표 Ⅵ-2> 주요요인별 스포츠복지지수 순위 102

그림 목차

<그림 II-1> 복합지수의 개발 절차 17
<그림 III-1> 스포츠복지지수 개발 절차 24
<그림 III-2> 계층적분석방법 절차 33
<그림 IV-1>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 40
<그림 IV-2>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구축 과정 51
<그림 IV-3>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 검증 절차 72
<그림 IV-4>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전체) 78
<그림 IV-5>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대상 요인) 80
<그림 IV-6>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시설 요인) 82
<그림 IV-7>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프로그램 요인) ... 84
<그림 IV-8>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인력 요인) 86
<그림 IV-9>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제도 요인) 88
<그림 IV-10> 평균연령(X)과 스포츠복지지수(Y)의 상관관계 89
<그림 IV-11> 기대수명지표(X)와 스포츠복지지수(Y)의 상관관계 9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복지가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스포츠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권일 외, 2010). 이러한 현상은 복지가 치안과 생계보장만을 의미하던 전통적 의미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도록 확장되었으며, 이에 스포츠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Bergsgard 외, 2006).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스포츠는 오늘날 스포츠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호주와 영국, 그리고 덴마크에서 조차도 개인 및 자기개발의 영역에 머물렀으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장려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선진국 정부는 여가와 스포츠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Green 외, 2006; Ibsen 외, 2006), 이는 명목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가 연이어 선포한 스포츠권(Sport Rights)에 근거한 변화였으나(García, 2006), 현실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였던 의료비 절감과 비만 퇴치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Donnelly, 2008). 정부 개입에 의한 스포츠의 전략적인 복지정책화는 곧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단순 여가를 넘어 복지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김영미 외, 2010).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진 반면, 한국의 사회복지적 현실은 선진국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이정학, 2007). 또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사회갈등, 높은 자살률, 낮은 공적 신뢰수준 등의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질이 진정으로 개선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이희길 외, 2009).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영역은 여가인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는 건전한 여가활동 측면, 건강유지 및 예방 의학적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 스포츠 활동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도록 도우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과 직결된다(노용구 외, 2017). 따라서 스포츠복지의 확대는 한국 정부의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국외 스포츠 선진국들의 주요 스포츠복지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역 공원을 기반으로 체육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미래를 대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관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체육을 집중육성 중에 있다. 호주의 경우 엘리트 선수들이 학업과 일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ACE: Athletic Career & Education Program), 구체적으로는 국가선수경력교육프로그램(NACE)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영국장애인올림픽협회의 주도 하에 장애인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노용구, 2015). 위와 같은 정책은 스포츠 선진국들의 스포츠복지가 복지 개념의 정치적, 이론적 당위인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기회'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Heinemann, 2005).

반면 국내 스포츠복지는 최근까지 담론의 형태로만 존재하였는데, 이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연구들이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스포츠복지의 독자적인 개념화를 위한 학문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심규성,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복지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통합콜센터 도입, 전 국민 스포츠, 체력인증제 도입, 종합형 스포츠클럽 추진, 체육인 진로 및 복지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종권, 2009). 또한, 소외계층(특히,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지원유형이 교실 및 클럽형(초보자, 체험 등), 대회형(지역 ·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운동회 등), 단순지원형(물품 지원, 지도자 배치 등), 서비스형(프로그램 보급, 관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등이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09). 이러한 학계와 현장의 현황 차이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실질적 정책 시행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스포츠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계층별, 소득별, 지역별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스포츠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적 유리화에 대한 원인은 한국의 복지평가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관련 자료들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하여 연속성 없이 파편화 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의미적으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통계가 존재하는 등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정책 시행 이후에 조사된 통계자료가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김영미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체육과학연구원(2008)은 스포츠복지사업 추진계획 연구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복지지원 사업이 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 간에 내용적 중복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평가 및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를 통해 복지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 2008). 사회지표란 사회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지표로, 건강, 교육, 근로 생활의 질, 여가 활동, 생활의 질, 가족, 커뮤니티 등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를 지칭한다(김영미 외, 2010).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삶의 질, 웰빙,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에 대한 범국가적인 국제통계 개념 및 기준을 개발하고자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OECD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복지지표체계 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통계청, 2009a). 이들은 GDP로 대표되는 경제 중심적 성장 논리를 넘어 종합적인 사회 발전(societal progress)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09b).

한국사회에서도 복지수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통계 및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도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복지패널자료가 전무하였고 복지통계 또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199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노동패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통계들이 생산되고 발전하였지만, 앞서 언급했듯 여전히 행정적 체계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스포츠복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복지의 현황을 진단 및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연풍(2011)은 지방자치단체 체육서비스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류현승 외(2018)는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복지 제약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복지의 전반을 표현할 수 있는 광의적인 지표이기보다는 스포츠복지 체계의 일부를 측정한 부분적인 자료로서 스포츠복지 전반에 대한 지역적, 시계열적 비교 및 평가가 어렵다. 하나의 대학, 지역, 나아가 국가와 같이 거대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스포츠복지지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며,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피평가단위별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함으로써 현행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존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 자료로부터 지역단위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하고, 해당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함으로써 스포츠복지지수의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문헌고찰을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주요요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한다. 셋째로,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스포츠복지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최종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로, 개발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수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다른 형태의 요인 가중치를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복지지수와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스포츠복지지수의 타당하고 신뢰로운 요인구조를 구축하고, 무형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양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스포츠복지지수의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을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주요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해당 단계에서 스포츠복지지수 요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델파이조사 설문지 제작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한다. 해당 단계에서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 및 세부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3)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스포츠복지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최종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4) 개발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적용하여 지수 값을 산출하고, 이를 다른 형태의 요인 가중치를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5) 스포츠복지지수와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복지의 개념

스포츠복지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복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줄기를 이루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 다른 개념과 목적하에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복지에 대하여 학술적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스포츠와 체육의 개념적 혼란, 스포츠복지와 체육인복지의 혼용, 사회복지와 스포츠복지의 위계적 논란이 지속되어 스포츠복지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노용구, 2015).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스포츠복지의 개념 및 범위가 요인 구성의 핵심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김사엽(2006)은 “연령, 성별,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라고 하였다. 김상겸(2007)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삶 내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다 폭 넓은 개념을 제시하였다. 심규성(2012)은 스포츠복지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스포츠 소외계층과 일반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복지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용구 외(2017)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권이 보장된 사회복지서비스, 차별 없는 스포츠참여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차원의 스포츠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위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스포츠복지는 대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참여를 통해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를 비롯한 공공차원이 주도하는 서비스로서 검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스포츠복지가 전 국민을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김권일 외(2010)는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모델개발 연구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광의의 개념으로 “스포츠복지란, 모든 국민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체육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협의의 개념으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연령, 성별, 계층 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참여 보장이다.”라고 별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위와 대조적으로 스포츠복지가 수혜 대상에 따라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개념은 전 국민이 스포츠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를 향유하는 보편적 복지의 맥락이다. 두 번째 개념은 자유로운 스포츠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계층에만 스포츠참여의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의 맥락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양분된 두 개념에 대한 찬반 논의이기보다는 같은 개념 속에서 수혜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이며, 권순용(2016)은 스포츠복지의 보다 건전한 논의를 위하여 두 개념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체육 환경에서의 스포츠복지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 이은석 외(2011)는 스포츠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와 복지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를 구분함으로써 다른 관점의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란 스포츠의 개념을 바탕으로 복지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며, 여기에서 스포츠복지란 개인이 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신적, 창조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Maslow가 말하는 보다 상위개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를 의미한다.

복지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란 스포츠가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혜진 외, 2018). 또, 정현우 외(2020)는 적극적 복지와 같이 복지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복지의 효율성 및 실질적인 개선 등 스포츠복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대상적, 영역적 논의를 넘어 개념에 따른 현장 적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스포츠복지의 개념체를 나누어 부분적인 요인 단위로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에 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의 모델 및 척도 개발 연구를 고찰하였다.

김권일 외(2010)는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스포츠복지 모델 개발 연구에서 스포츠복지 모델 유형을 교실형, 클럽형, 대회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혜 대상에 따라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석 외(2011)는 한국의 스포츠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연구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변천을 요약 및 정리하였다. 스포츠복지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현장의 요구에 알맞은 스포츠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용구(2015)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진행한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들로부터 스포츠복지 분야가 타 복지 분야에 비해 취약한 요인을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요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스포츠복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관련 법률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스포츠복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를 추진의 주체로 여긴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용구 외(2017)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정립과 모형 제안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연구에서 스포츠복지의 범위를 대상별(경제, 사회적 소외계층, 스포츠참여 취약계층, 일반국민)로, 그리고 목적별(생존권 보장,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환경조성, 삶의 질 행복 추구)로 분류하였다. 목적별 구성요인은 공공부조(바우처)-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재정-총체적 건강, 사회적 통합 등으로 나타났다.

류현승 외(2018)는 소외계층의 스포츠복지 제약척도 개발 연구에서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공통적으로 지각하는 스포츠복지 제약요인을 찾아 척도로 제시하였다. 소외계층에서 나타난 제약요인 중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요인은 편견, 정보부족, 생계, 비용부담으로 나타났다.

김흥태 외(2019)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방향 연구에서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 정책",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자체 스포츠복지에 있어 대상, 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 체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상 스포츠복지의 개념 모델, 정책방향, 그리고 척도 연구 등을 살펴보면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으로 '대상'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설, 인력, 체계 등이 꾸준히 나타났다.

3. 지수의 개발

사회복지 및 정책평가 분야에서 복합지표(CI; Composite Indicator)를 활용하여 사회 발전의 양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 2008). 이러한 복합지표는 환경, 경제, 사회 또는 기술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스포츠복지지수 개발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수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1) 지표(indicator)와 지수(index)의 개념

지표란, 어떤 현상이나 변화를 양적 정보로 표현한 것이다. 지표는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체계의 내용을 단순화 및 계량화하여 보다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즉, 전체를 요약하여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인 것이다. 복지계획 및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지표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담으며, 해당 지표는 현재 복지 수준의 위치와 성과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표는 그 구성에 따라 단일 정보만을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여러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는 복합지표로 구분된다. 복합지표는 단일

지표들을 임의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가산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단일한 특성만 보고하는 지표를 가리켜 지표(indicator)라고 지칭하며, 여러 지표가 합쳐진 복합지표를 가리켜 지수(index)라고 부른다.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복합지표, 즉 지수를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균형적이어야 하고, 각각의 지표들의 비중이 검토되어야 한다(류방란, 2010).

이 밖에도 Clemmer(1974)는 지표란 양적 개념으로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특정 시점에서의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표현어(descriptor)라고 정의하였다. 즉, 지표는 개발 목적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라는 것이다. Land 외(1975)는 사회적 지표가 사회 구성원의 삶에서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는 데에 적용된다고 말하였는데, 해당 정의 또한 지표가 본질적으로 대상의 질적 수준 및 양적 수준에 대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표를 처음으로 정의한 것으로 알려진 Bauer는 사회적 지표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쯤 서있는가? 목적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Bauer, 1966). Cohen(1968) 역시 지표가 우리 사회 내부의 상황을 진단하며, 사회적 문제의 크기 및 변화하는 정도를 투영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는 사회지표가 특정 사회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리키는 기준이 됨을 말한다. 즉, 사회지표란 사회의 조건의 상태(as-is) 및 나아가야 할 방향(to-be)을

나타내는 양적, 질적 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복지지수란,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복지 수준이 일정 기준대비 얼마나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2) 지수의 성격과 기능

지표와 지수는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특성을 지닌다(류방란, 2010). 규범적 특성이란, 합의된 목표를 기준으로 그에 비교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을 뜻한다. 규범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추상적 규범을 계량 가능한 형태로, 즉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표와 지수의 기술적 특성이란, 특정한 규범적 합의 없이도 대상의 현황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속성을 뜻한다. 가령, 물가지수는 어떠한 규범적 합의 없이도 기준이 되는 시점을 둠으로써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어떤 특성으로 보더라도 지표란 대상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 자료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제도 및 정책의 현 수준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통계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3) 지수의 개발 절차

지수의 용도가 다양한 만큼 지수의 종류 및 개발 절차 또한 매우

다양하다. OECD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해당 시기의 사회적 트랜드에 맞추어 유의미한 사회지표를 묶어서 소개하는데, 그 숫자만 해도 현재 120여 개에 이른다(OECD, 2019). 따라서 지수의 개발 절차 또한 용도에 따라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데, 복합지수의 개발의 경우에는 복합지수에 사용될 지표들을 직접 만드는 방법과, 이미 존재하는 지표들을 검토하여 종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지수의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지수들이 개발에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개발 원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Bell, 외, 2003; Keeble 외, 2003; Wackernagel 외, 2002;). 연구자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지수의 필요성과 완성도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결과물이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수개발과정은 지수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Walter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합지수에 대하여 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제시하는 복합지수의 설계,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총 10단계의 개발 절차, 그리고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틀로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종합하여 스포츠복지지수의 개발 절차를 수립하였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복합지수의 개발 절차(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 2008)

기초 단계	1	이론적 틀의 정립
	2	자료 수집
	3	결측값의 처리

▽

통계 분석 단계	4	다변량 분석
	5	자료의 표준화
	6	가중치 부여 및 합산
	7	견고성 및 민감성 검증

▽

적용 단계	8	실제 데이터와 비교
	9	다른 변수와 관련성 검증
	10	제시 및 시각화

① 이론적 틀의 정립

좋은 복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선택과 결합에 있어 충분한 기초 및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정립하여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적절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자료 수집

세부지표는 통계적 안정성, 측정 가능성, 측정 범위, 측정되는 현상에 대한 관련성, 그리고 지표 간 상호 관계에 근거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세부지표의 조합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지수의 세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표의 설계적 타당성과 적합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체지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해야 함을 시사한다.

③ 결측값의 처리

세부지표의 조사 과정에서 결측값 혹은 극단값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결측값 및 극단값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변량 분석

지표 선정 후 모형을 검토함에 있어 탐색적 분석 등의 타당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본 절차를 통해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가중치 산출과 같은 방법론적 선택을 설명해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이 결정되면 해당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자료의 표준화

지표들 간에 대등한 비교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표준화해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표준화한 뒤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⑥ 가중치 부여 및 합산

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수집된 지표들의 속성과 지수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이론틀에 의거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이때 지표의 속성에는 세부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중복되는 지표들에 대한 가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세부요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때에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계층구조가 생기는 복합지수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역 안에서 의미상으로 겹치는 지표들이 많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견고성(Robustness) 및 민감성 검증

복합지수의 건정선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의 표준화, 결측값 대체, 가중치 산출 및 합산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후에 각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중치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제작한 후에 결과로부터 비교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⑧ 실제 데이터와 비교

복합지수 개발 후에는 지수의 산출값이 주요한 세부지표에 견주었을 때 대표성을 지니는지 검토되여야 한다. 스포츠복지지수가 구성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⑨ 다른 변수와 관련성 검증

복합 지표와 게시된 다른 지표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연결을 식별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수준, 인구통계학적 수치 등과 연결하여 스포츠복지지수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⑩ 제시 및 시각화

복합지수는 시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지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지수를 제시함에 있어 수치와 더불어 시각자료를 제시함이 권장된다.

4. 스포츠 관련 지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수 개발 관련 연구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스포츠복지지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기봉(2015)은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행복지수 개발을 연구하였다.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부터 귀납적 분류과정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델파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서희진 외(2015)는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의 스포츠거버넌스 지수를 분석하였다. 체육단체의 조직 특성(예산, 재정자립도, 선수규모, 경기실적)을 측정함으로써 대한체육회 등 타 체육단체의 스포츠거버넌스 지수(투명성과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규제와 균형, 연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기선영 외(2014)는 스포츠잠재력지수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스포츠 영재성에 대한 탐색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스포츠잠재력지수는 학교 체육 평가인 PAPS의 구성항목에 특정 가중치 값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었으며, 해당 지수는 학생들의 실제 체력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개념적 틀이 존재하는 지수로서 통계적 합산 및 산출보다는 이론적 근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김정준 외(2020)는 AHP를 활용한 축구선수 선발 방법 비교 연구에서 축구 감독들의 선수 선발 방식과 AHP를 시용하여 선발한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선수 선발에 적용되는 주요요인을 지도자의

속성(경력 및 자격증 수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황수웅 외(2019)는 프로축구선수의 평점과 경기력 평가 점수체계의 비교 연구에서 주관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축구선수의 경기 평점과 경기력 평가 점수체계에서의 점수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편현웅 외(2010)는 한국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수행력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 탐색 연구에서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경기수행력에 대한 주요요인을 탐색하였으며, 동일한 요인구조의 가중치에 대하여 동일가중치, 델파이 조사의 중요도, 그리고 주성분분석 기법을 각각 적용한 값을 활용하여 총 세 가지 형태의 지수를 제안하였다. 홍성진 외(2017)는 계층적분석방법을 통한 축구 경기력 평가 요인 가중치 산출 연구에서 축구 경기력의 기술요인과 포지션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경기력을 평가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선수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 연구들은 통계적 합산 및 산출에 의거하여 스포츠 관련 수리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스포츠 관련 종합지수보다는 경기력 평가지수(평점)에 대한 개발 및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

국외 스포츠 관련 지수 개발에서 Thorborg 외(2017)는 5초 동안의 둔근 내전 조임 동작을 통하여 스포츠에 의한 사타구니 통증의 정도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Hashim 외(2008)는 고등학교 체육교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즐거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Trail 외(2001)는 스포츠소비의 동기에 대한 평가척도에 대하여 질문지의 심리적 구성을 평가하였다. Pace(2001)은 스포츠의

스윙 임팩트에 대한 속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스포츠의 스윙에 있는 임팩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력을 복합지수로서 표현하였다. Grehaigne 외(1997)는 팀스포츠에서 개인의 경기력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경기력은 효율성 지표와 플레이의 영향력이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Carron 외(1985)는 스포츠팀의 응집력 평가도구로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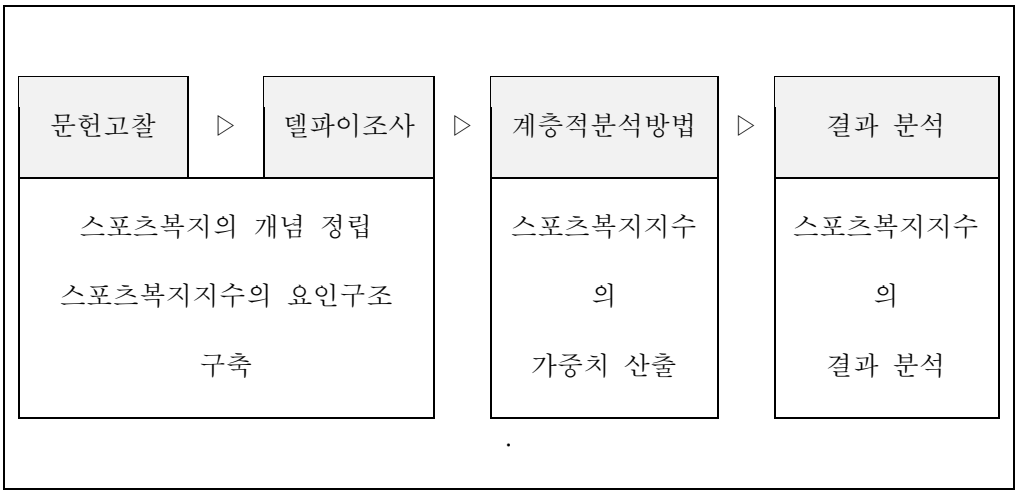
국내 스포츠 관련 지수의 고찰을 통해 지수의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스포츠 관련 정책평가 및 타 사회과학 분야의 지표를 스포츠영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내의 데이터가 방대해짐에 따라 이를 요약 및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국외 지표 및 척도 자료는 스포츠과학적 용도로의 쓰임새가 많았으며, 이론적이고 통계적인 합산보다는 규범적인 연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의 스포츠 지수 연구물에 비하여 국내 스포츠 지수, 특히 사회복지 관련 스포츠 지수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Österlind(2016), Smith 외(2010)와 Houlihan(2002) 등에서는 실증적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정책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마다 경제, 인구, 문화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 맞는 스포츠복지지수가 필요하나 이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와 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제시한 사회적 복합지수 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개발 절차를 수립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구축,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스포츠복지지수의 개발, 그리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문헌고찰,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그리고 최종 지수에 대한 결과분석이 차례로 실시되었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스포츠복지지수 개발 절차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의 요인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스포츠복지를 키워드로 하는 국내외 선행연구, 학회 토론 자료, 정부보고서, 지자체 및 스포츠복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 국내 자료에 대해서는 스포츠복지를 체육인복지와 혼용하여 사용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해외 자료 대해서는 “sport service”를 주요 키워드로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스포츠복지 관련 모델 및 척도를 제시한 국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으며,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조사된 신뢰가능한 출처의 스포츠복지 관련 지표를 수집하여 추후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를 구성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조사된 지표 자료 중 마지막 측정 해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활용이 어려운 자료, 시계열적 연속성이 없는 자료, 그리고 지역별 구분이 없어 결과 분석 단계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델파이조사(Delphi Method)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스포츠복지지수의 이론적 틀이 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요약 및 정리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이 델파이조사의 질문지 제작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 델파이조사의 개요

델파이조사는 변화가능성 및 기대 등의 미래변화를 예측해 내거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예측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하여 객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이다(이종성, 2001). 이 밖에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기관의 계획수립에도 활용되며, 평가의 준거 틀을 개발하는데에 사용되기도 한다(김병욱, 2015). 델파이조사는 자문을 위한 패널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2-3회의 델파이조사가 반복되는 동안 이전 회 차의 통계적 집단반응과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 회차에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이종성, 2001). 초창기 델파이조사는 3회 이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회의 델파이조사만으로도 그 절차적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김형수, 1996).

2) 델파이조사의 목적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1) 스포츠복지의 개념, (2)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 (3) 스포츠복지의 세부요인에 대한 질문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3) 델파이조사의 대상

델파이조사는 전문가들의 합의가 곧 결과와 직결되므로 선정에 대하여 타당한 기준을 고려하고 그에 의거한 패널의 구성 및 선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로 정립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이 스포츠복지지수의 이론적 틀로서 적절한 형태를 가져야 하고, 둘째로 스포츠복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며, 셋째로 개념으로서 작용하는 스포츠복지의 학술적 개념이 현장의 스포츠복지 요구와 괴리가 없도록 현장 경험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회학 교수 1명, 특수체육 교수 1명, 스포츠정보학 교수 1명, 스포츠복지 전문가 , 스포츠사회학 및 특수체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스포츠복지 교수 2명 및 스포츠복지 전문 연구원 2명, 그리고 스포츠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까지 총 10명 선정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 및 종합하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

였다.

4) 델파이조사의 방법

델파이조사의 패널 숫자에 대하여 Delbecq 외(1975)는 10명에서 15명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Murry Jr 외(1995)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의견에 따라 총 10명의 스포츠복지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스포츠복지의 개념 및 주요요인, 스포츠복지지수 요인구조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스포츠와 복지의 개념, 스포츠복지의 연구동향이 참고자료로 주어졌고,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개방형의 비구조화된 질문의 형태로 요청하였다. 또한,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스포츠복지의 모델과 척도 및 유관 분야 지표 사례가 참고자료로 주어졌고,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을 8개 이상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분석 및 종합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를 설계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종합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고, 스포츠복지의 5개 주요요인 및 35개의 세부요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개념 및 요인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로 타

당성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문항과, 연구자가 두 차례에 걸쳐 구축한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성 평가 문항이 배부되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의견에 따라 개념을 발전시켰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도는 각 요인별로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조사는 각 차시 별로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전문가들에게 배포 및 수거되었고, 모든 차시의 회수율은 100%이었다.

3. 요인별 가중치 산출: 계층적분석방법(AHP)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는 계층적분석방법을 통해 산출되었다. 세 차례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구축된 스포츠복지지수 요인구조의 주요요인 5개 및 세부요인 13개 각각의 수준에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1) 계층적분석방법의 개요

계층적분석방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하여 주요요인과 세부요인들로 나누고, 동일한 차원의 요인들 간에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함으로써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Saaty, 1990). 쌍대비교는 두 개의 요인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두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한다. 즉, 각 요소에 대하여 일대일 비교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직관적으로 돕는다.

이러한 방법은 의사결정이 전문가들의 주관에 치우쳐 질 수 있고, 참여 집단에 따라서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최민철, 2020). 하지만 계층적분석방법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함으로써 적은 양의 표본으로도 신뢰성과 전문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강현수, 2008; 김홍배 외, 2012).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다양한 경우에 의사의 일관성을 검증하면서 효과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도구이다(나준엽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연구가 누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복지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요인별 가중치 산출에 계층적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III-1> 계층적분석방법의 장점과 단점

계층적분석방법	
장점	단점
· 정량적 자료, 정성적 자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지수의 투명성이 높다. · 가중치가 전문가의 견해로 만들어짐에 따라 타당도가 높고,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 · 일관성 지수를 통해 자체 검증이 가능하다.	·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쌍대비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계산이 복잡하다. · 연구의 이론틀 및 소수의 전문가에 좌우됨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떨어진다.

2) 계층적분석방법의 목적

앞서 도출된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 대하여 주요요인 및 세부요인 각각의 수준에서 계층적분석방법의 쌍대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최종 적용된 요인구조는 2개의 계층(주요요인, 세부요인)에 주요요인 5개와 세부요인 13개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쌍대비교 횟수는 총 주요요인 10회와 세부요인 20회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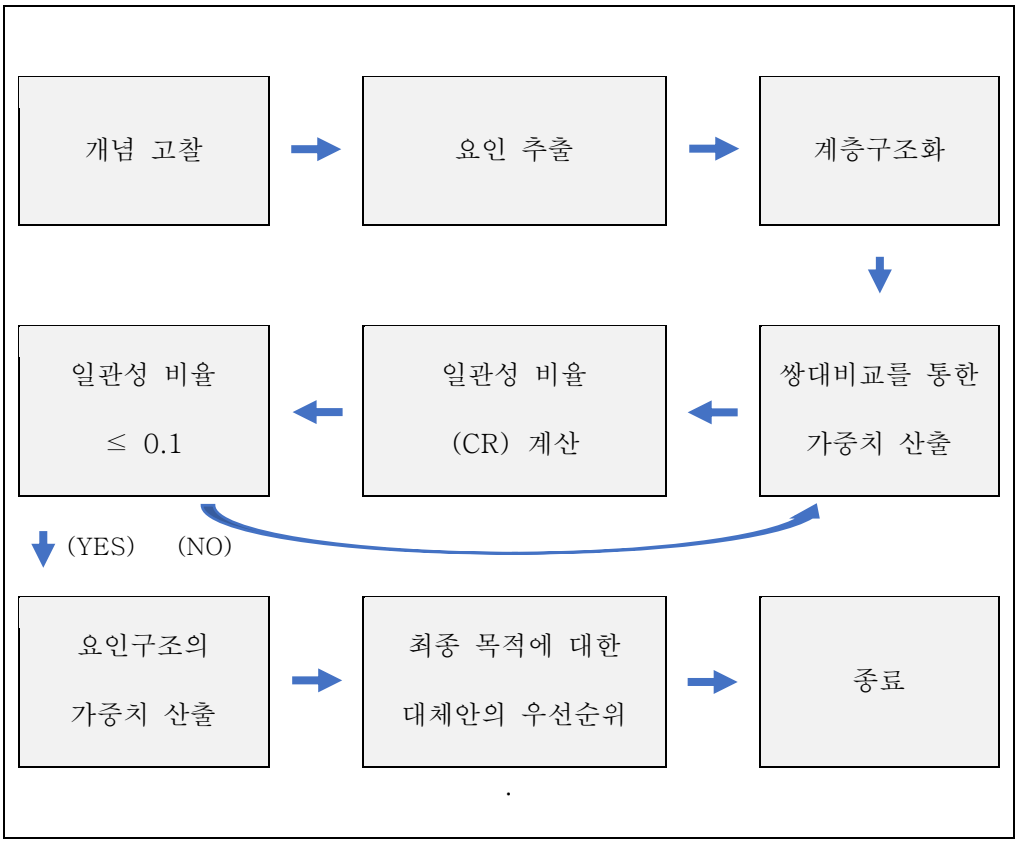
3) 계층적분석방법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스포츠사회학 및 특수체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스포츠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총 10명을 선정하여 계층적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이메일로 배포 및 수거되었으며 응답률은 90%이었다.

4) 계층적분석방법의 절차

계층적 분석방법의 절차는 크게 계층구조화, 쌍대비교, 일관성 확인, 가중치 산출, 그리고 지수값 산출의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계층적분석방법 절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계층구조화를 실시한다. 계층구조화 단계는 연구문제를 단계별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순서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층별 쌍대비교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 및 대안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쌍대비교의 척도를 제시한 후 일대일 쌍대비교를 실시하고 이를 계량화 한다. 쌍대비교 척도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계층적분석방법 쌍대비교 척도

척도 점수	정의
1	A와 B가 동일하게(Equally) 중요함.
3	A가 B보다 약간(Moderately) 더 중요함.
5	A가 B보다 상당히(Strongly) 더 중요함.
7	A가 B보다 매우(Very Strongly) 더 중요함.
9	A가 B보다 절대적으로(Extremely) 더 중요함.
2, 4, 6, 8	각 점수들의 중간 점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쌍대비교 평가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쌍대비교는 1~9의 척도로 선호도를 표시하여 진행되는데, 이때 수집된 쌍대비교 값이 일관된 판단 하에 이루어졌는지 일관성 비율(CR≤0.1)을 통하여 확인한다. 일관성 비율이 적절하지 못한 값은 수정 또는 폐기 과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일관성 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R(Consistency\ Ratio) = \frac{CI}{RI}$

(1) 일관성 지수 CI (Consistency Index)

$$CI = (\lambda_{max} - n)/(n-1)$$

(2) 무작위 지수 RI (Random Index)

N	1	2	3	4	5	6	7	8	9	10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6	1.49

네 번째 단계에서는 쌍대비교 결과값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 요인들의 상대적 점수로 구성된 쌍대비교 행렬로부터 요인별 고유값(eigenvalue)을 계산하여 해당 값을 요인별 가중치로 활용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된 요인별 가중치를 정리하여 최종 가중치 모형을 구축한다. 각 요인들의 개별적 가중치를 확인함으로써 요인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김정준 외, 2020). 이렇게 도출된 가중치는 하나의 지표를 위하여 다른 지표를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Forman(1983)은 계층적분석방법을 보상적 의사결정 방법론이라고 평가하였다.

4. 지수 개발 및 유용성 검증

스포츠복지지수의 지수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으로 채택된 세부요인에 대하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및 가중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가중치 모형 및 델파이조사 중요도 모형과 비교하였다.

1)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체육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들을 엑셀 혹은 csv 파일 형식으로 수집한 뒤에, 같은 연도의 자료끼리 묶어 지역 단위로 표준화하였다. 가급적 조사된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되, 실제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지표로 대체하거나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2) 가중치 모형

가중치 산출 방법별로 스포츠복지지수를 산출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 산출 방법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중치 모형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범위 등의 분포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① 동일가중치(EW; Equal Weight) 모형

대부분의 복합지수는 동일한 가중치(EW; Equal Weight)법을 사용한다(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 2008). 산술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동일가중치는 복합지수 내부 모든 요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가치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대체지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경우, 혹은 경험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가중치는 가중치가 없음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중치가 동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만, 복합지수 내부 요인의 차원이 분화되고 주요요인과 세부요인 단위로 계층이 생겨 복잡해지는 경우, 그리고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 두 개 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하나의 주요요인에 많은 부하가 작용함으로써 차원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가중치 적용 시에는 요인 간 상관계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Manly 외, 2016).

(예시) 스포츠복지지수 동일가중치 모형

$$\textit{스포츠복지지수} = \mathbf{1} * \textit{요인}_1 + \mathbf{1} * \textit{요인}_2 + \mathbf{1} * \textit{요인}_3 + \cdots + \mathbf{1} * \textit{요인}_n$$

② 델파이조사 가중치 모형

델파이조사를 통한 가중치 모형은 전문가로부터 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척도 점수를 수집하고 이를 각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로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조사 방법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특정 환경에 적절하고 타당한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다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예시) 스포츠복지지수 델파이조사 가중치 모형

$$\textit{스포츠복지지수} = \boldsymbol{a_1} * \textit{요인}_1 + \boldsymbol{a_2} * \textit{요인}_2 + \boldsymbol{a_3} * \textit{요인}_3 + \cdots + \boldsymbol{a_n} * \textit{요인}_n$$

3) 지수의 적용 및 유용성 검증

스포츠복지지지수를 현장에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복지지수를 적용하여 지수값을 산출하고, (2) 스포츠복지지수와 다른 인구통계학적 지표, 건강 및 의료통계학적 지표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2)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구축, (3)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4) 스포츠복지지수 모형 적용을 통한 지수값 산출 및 다른 형태의 지수값과 비교, (5) 그리고 스포츠복지지수와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전문가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 그리고 최종 지수에 대한 결과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복지의 개념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문헌고찰 및 세 차례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도출되었다(<그림 IV-1> 참조). 문헌고찰은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학회 토론 자료, 정부보고서, 지자체 및 스포츠복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델파이조사에서 사용될 질문지를 제작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세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림 IV-1>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

스포츠복지의 개념	
문헌고찰	· 선행연구 고찰 · 델파이조사 질문지 제작

▽

전문가 자문 회의	·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계획 검토 · 델파이조사 질문지 타당성 확인

▽

델파이조사	·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 스포츠복지, 스포츠사회학, 특수체육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총 10명 대상 3차례 수행

1) 문헌고찰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 현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차후 질문지 제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의 범위는 스포츠복지의 개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정부보고서, 간행물, 지자체 및 기관의 홈페이지 등으로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두 가지 맥락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개념은 전 국민이 스포츠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향유하는 보편적 복지의 맥락이다. 두 번째 개념은 자유로운 스포츠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계층에 스포츠참여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의 맥락이다.

이 외에도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스포츠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와 복지 측면에서 보는 스포츠복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 그리고 적극적 복지와 같이 복지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복지의 효율성 및 실질적인 개선 등 스포츠복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고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문헌고찰의 결과에 따라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스포츠참여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고 스포츠복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였다.

2)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스포츠복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델파이조사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질문지를 활용하여 총 세 차례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차례마다 결과와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① 1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개방형 질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스포츠의 개념, 복지의 개념, 그리고 선행연구의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합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대상으로 귀납적 분류화의 과정을 거쳐 문장성분 단위로 해체 및 빈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표 IV-1>, <표 IV-2> 참조), 선행연구의 내용과 함께 분석 및 종합함으로써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표 IV-3> 참조). 1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이었다.

<표 IV-1>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대상, 목적)

대상 (~의)	목적 (~을 위하여)
▶ 개인과 사회 ▶ 누구나 ▶ 전 국민 및 특정계층 ▶ 모든 국민 ▶ 개인 ▶ 스포츠를 원하는 모든 사람 ▶ 국민 전체 ▶ 일반 대중	▶ 건강, 삶의 질, 행복추구 ▶ 운동욕구 ▶ 건강한 삶, 행복한 삶 ▶ 건강하고 행복한 삶, 향유권리 보장 ▶ 개인의 건강, 사회통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 ▶ 윤택한 삶, 스포츠활동 ▶ 윤택한 삶과 스포츠활동 ▶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 ▶ 건강하고 행복한 삶
키워드 요약 (빈도)	
▣ 전 국민 (7) ▣ 개인과 사회 (2) ▣ 스포츠 수요자 (1)	▣ 건강과 삶의 질 (5) ▣ 운동 및 여가 (5) ▣ 행복 추구 (4)

<표 IV-2>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과정(수단, 개념)

수단 (~형태의)	개념 (무엇)
▶ 스포츠 참여 ▶ 체육시설 ▶ 스포츠 ▶ 스포츠참여 ▶ 스포츠참여 ▶ 스포츠시설 등의 체육인프라 ▶ 양질의 시설, 프로그램, 인력 ▶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적 스포츠 ▶ 스포츠 활동 기회 ▶ 프로스포츠, 생활체육	▶ 사회보장제도 ▶ 상태 ▶ 상태 ▶ 사회정책 및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 서비스 ▶ 국가/사회적 혜택 ▶ 서비스 ▶ 복지활동
키워드 요약 (빈도)	
▣ 스포츠 참여 (7) ▣ 체육 인프라 (3)	▣ 복지 및 서비스 (8) ▣ 상태 (2)

문장 단위별로 대상에서는 “전 국민”, 목적에서는 “건강, 삶의 질, 여가, 행복”, 수단에서는 “스포츠 참여”, 개념에서는 “복지 및 서비스”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표 IV-3>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재구성

대상	**~의**	▣ 전 국민 스포츠복지의 방향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목적	**~을 위하여**	▣ 건강, 여가, 행복 스포츠가 의료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협의의 복지적 목적과, 스포츠를 통해 여가 및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광의의 복지적 목적이 혼재되어 나타남.
수단	**~형태의**	▣ 스포츠 참여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함.
개념	**무엇**	▣ 복지 및 서비스 스포츠복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종합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여가와 행복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② 2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타당도 평가를 요청하였다. 2차 조사를 통해 측정된 스포츠복지 개념의 타당도 점수(<표 IV-4> 참조) 및 그에 대한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이었다.

<표 IV-4>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 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여가와 행복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4.7	0.46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평균 4.7(표준편차 0.46)으로 나타나 비교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응답률(타당성 평가 4점 이상)은 100%로 나타났다.

다만, 재구성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다.

- 여가의 개념이 건강과 행복의 개념과 동일한 차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여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떠한 여가를 목적으로 한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스포츠복지와 의미적으로 중복되며, 스포츠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 또는 실현수단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 스포츠복지의 개념이 갖는 서비스로서의 범위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여가의 개념이 "건강, 행복, 삶의 질"의 개념과 동등한 차원에 있기보다는 그에 대한 실현 수단에 가깝다는 점,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대체 용어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따라 용어를 "여가"에서 "여가 선용"으로 변경하고 후순위로 순서를 변경하였다. 또한, 스포츠복지의 개념적 형태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광의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체화하였다(<표 IV-5> 참조).

재구성된 스포츠복지의 개념 및 전문가들의 수정 요청을 종합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광의적 서비스 전달체계이다.'로 수정하였다.

<표 IV-5>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수정

기존 안	수정 안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여가와 행복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광의적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③ 3차 델파이조사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타당도 평가를 요청하였다. 3차 조사를 통해 측정된 스포츠복지 개념의 타당도 점수(<표 IV-6> 참조) 및 그에 대한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최종 확정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이었다.

<표 IV-6>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타당도 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광의적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4.0	0.85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정된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평균 4.0(표준편차 0.85)으로 나타나 비교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조사에 비하여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긍정적 응답률(타당성 평가 4점 이상)은 90%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조사의 개념보다 더 낮은 타당도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여가 선용의 목적이 행복과 건강 추구 목적과 수준이 다르다.
- 광의적이라는 표현이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고, 스포츠복지를 수단화할 가능성이 있다.
- 복지의 키워드인 삶의 질을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수정 요청을 종합하여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넓은 범위로는 여가선용 및 즐거움이 삶의 질 향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가선용을 삭제하였다. 광의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광의적 복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비스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로 최종 도출하였다(<표 IV-7> 참조).

<표 IV-7>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의 개념 도출

기존 안	최종 안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광의적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2.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는 문헌고찰 및 세 차례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구축되었다(<그림 IV-2> 참조). 문헌고찰은 스포츠복지의 개념 모형 및 척도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델파이조사에서 사용될 질문지를 제작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세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였다.

<그림 IV-2>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구축 과정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문헌고찰	· 선행연구 고찰 및 델파이조사 질문지 제작 · 체육관련 지표 고찰

▽

델파이조사	·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구축 · 스포츠복지, 스포츠사회학, 특수체육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총 10명 대상 3차례 수행

1) 문헌고찰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현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차후 질문지 제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스포츠복지의 개념 모형 및 척도 개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정부보고서, 지자체 및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포츠복지지수의 실질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지표를 탐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체육관련 지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스포츠복지의 개념 모델, 정책방향, 그리고 척도 등을 살펴보면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으로 '대상'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설, 인력, 체계 등이 꾸준히 도출되었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실질적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체육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고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20)의 현황자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의 31개 조사 문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 한국의 체육지표(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의 체육지표를 확인하여 총 518개의 지표를 확인하였다. 이 중에 향후 스포츠복지지수를 통한 종단 분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계열적 자료가 없는, 즉 최근 3개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지 않은 지표 273개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복지지수가 지역사회 단위 비교를 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 그리고 스포츠복지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121개를 제외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탐색된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과 지표 124개에 대하여 델파이조사의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총 세 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차례마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델파이조사의 전문가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참가한 전문가 집단과 동일하였다.

① 1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을 8개 이상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자료로 문화지표와 복지지표가 예시로 제공되었다. 1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총 80개의 요인을 수집하였고, 유사한 답변들을 빈도별로 요약하여 총 35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표 IV-8> 참조).

<표 IV-8>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 응답 결과

전문가 제시 요인	키워드	빈도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공공체육시설	8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체육예산	8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수입대비 비용 및 예약 편리성)	체육시설	5
1인당 스포츠 전문인력(지도자 등) 수	전문인력	5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존재 유무	법규 및 조례	5
스포츠참여 만족도	참여	5
1인당 체육시설 수, 면적	체육시설	4
1인당 민간체육시설 수, 면적	민간체육시설	4
인구대비 스포츠클럽 또는 동호인 클럽 및 회원 수	클럽/동호회	4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3
지역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관련 행사 횟수	경기/행사	3
월별/주간 실제 운동 횟수 및 시간	실제 운동	3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참여 인구	3
관전스포츠 접근성	관전스포츠	2
건강체력 지수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비율	체력/의료비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수 등	대회 수	2
지역 스포츠용품 매출액 및 스포츠 관련 식품(음료 등) 매출액	식품/용품	1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개수	종목	1

가내 스포츠용품 대략적 총 개수	용품	1
지역내 운동팀 보유 현황	운동팀	1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포함) 및 스포츠 동호회 수	동호회	1
학교체육 활성화 정도	학교체육	1
공공체육시설의 만족도	공공체육시설	1
사설체육시설의 만족도	사설체육시설	1
스포츠바우처 활용가능한 스포츠시설 개수	스포츠시설	1
동계/하계 구분 시설 수	체육시설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사용 가능 시설 수	소외계층	1
대상별 전문인력	전문인력	1
지역내 체육단체 활동수준	체육단체	1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수준	자치단체 행정	1
1인당 이용 가능(개설) 공공 스포츠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1
체육 프로그램 수준	프로그램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프로그램	1
1인당 체육예산	체육예산	1
스포츠윤리의식 민감도(폭력, 성추행, 성폭력 포함), 스포츠윤리강령 유무, 스포츠윤리문제 대응 매뉴얼 등	윤리의식	1

수집된 80개의 주요요인에 대하여 빈도별로 정리하여 총 35개 요인들로 요약하였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된 스포츠복지의 요인을 종합하여 키워드별로 묶어 총 5개의 주요요인을 생성하였으며(<표 IV-9> 참조), 각 세부요인들은 해당되는 주요요인별 영역에 편성하였다.

<표 IV-9> 1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 및 편성

스포츠복지지수					
분류	복지서비스 차원			제도 차원	대상 차원
주요요인	시설	프로그램	인력	제도	대상

② 2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구축한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제시하고, 각 주요요인 내 세부요인에 대하여 요인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줄 것을 점수표의 형태로 요청하였다(<표 IV-10> 참조). 또한, 전문가들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따라 대상 차원을 가장 앞으로 옮김으로써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서 대상 차원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이었다.

<표 IV-10> 스포츠복지지수의 주요요인별 세부요인 중요도 평가표

주요요인							
요인 명	덜 중요함						더 중요함
	1	2	3	4	5	6	7
세부요인 1							
세부요인 2							
세부요인 3							
…							

2차 델파이조사에서 조사된 요인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주요요인별로 평균 5점 이상의 긍정 응답을 받은 세부요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는 최종 5개 주요요인, 14개 세부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보완 요청에 따라 2개 세부요인이 추가되어 수정된 요인구조는 총 16개 세부요인으로 결정되었다(<표 IV-11> ~ <표 IV-15> 참조).

<표 IV-11>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별 점수

대상 요인		
세부요인 명	**평균**	**표준편차**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6.00	1.095
스포츠참여 만족도	5.90	0.943
실제 운동 횟수 및 시간	5.70	0.900
인구대비 스포츠클럽 또는 동호인 클럽 및 회원 수	5.20	1.536

○ 대상 요인에서는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인구대비 스포츠클럽 또는 동호인 클럽 및 회원 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인구대비 스포츠클럽 회원 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와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크고, 높은 표준편차를 보임에 따라 제외하였다.

<표 IV-12>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별 점수

시설 요인		
세부요인 명	**평균**	**표준편차**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6.60	0.663
공공체육시설 사용 만족도	6.20	0.748
소외계층 및 장애인 사용가능한 시설 수	6.20	0.980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수입대비 비용 및 편리성)	5.60	1.428
1인당 **민간**체육시설 수, 면적	5.40	1.114
민간체육시설 사용 만족도	4.50	1.360

○ 시설 요인에서는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민간체육시설 사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민간체육시설의 요소를 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스포츠복지의 주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스포츠복지에 민간복지의 개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에서 공공을 주체로 설정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민간복지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민간체육시설의 요인을 제외하였다.

<표 IV-13>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별 점수

프로그램 요인		
세부요인 명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5.60	1.356
스포츠바우처 사용 가능한 스포츠 프로그램 수	5.60	1.428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	5.20	0.980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준	5.00	1.483
관전스포츠 접근성	4.60	0.917
지역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관련 행사 수	4.50	1.285

○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지역사회 주관 스포츠 행사 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만족도가 복지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이 있었고, 지역 단위 프로그램 만족도도 지역마다 다르게 조사되어 있어 선정되지 않았다.

<표 IV-14>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별 점수

인력 요인		
세부요인 명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스포츠 전문인력 (지도자 등) 수	5.40	1.356
지도자 전문성(자격증 유무)	4.90	1.513
스포츠윤리의식 민감도	4.60	1.744
1인당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5.40	1.224
스포츠 지도내용 전문성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	–

○ 인력 요인에서는 "1인당 스포츠 전문인력 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스포츠 윤리의식 민감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지도자의 전문성"은 "1인당 스포츠 전문인력"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조사된 전문성(생활체육지도자 1급, 2급의 구분 등)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 "1인당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및 "스포츠 지도내용 전문성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으로 편입되었으나, "수혜자 만족도"는 별도 조사된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다.

<표 IV-15> 2차 델파이조사: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별 점수

제도 요인		
세부요인 명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체육예산	6.10	0.831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6.00	1.000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존재 유무	5.80	1.077
스포츠윤리의식 민감도(스포츠윤리강령 유무, 스포츠윤리문제 대응 매뉴얼 등)	4.70	2.100
지역 내 체육단체 활동수준	4.30	1.345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수준	4.20	0.748

○ 제도 요인에서는 "1인당 체육예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수준"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스포츠윤리의식 민감도'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편차가 큼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보다 점수가 높은 상위 요인 3개가 나타남에 따라 제외하였다.

위 중요도 점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 및 선행연구 시사점을 종합하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였다(<표 IV-16> 참조).

<표 IV-16> 2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스포츠복지지수					
분류	대상 차원	복지서비스 차원			제도 차원
주요요인	대상	시설	프로그램	인력	제도
세부요인1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세부요인2	스포츠참여 만족도	공공체육시설 사용 만족도	스포츠바우처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수	1인당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인당 체육예산
세부요인3	실제 운동 횟수 및 시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 사용 가능한 시설 수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존재 유무

③ 3차 델파이조사

3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구축한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에 대한 보완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수입대비 체육시설 비용”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보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스포츠복지지수 요인구조를 구축하였다(<표 IV-17> 참조). 3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이었다.

<표 IV-17> 3차 델파이조사: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스포츠복지지수					
분류	대상 차원	복지서비스 차원			제도 차원
주요요인	대상	시설	프로그램	인력	제도
세부요인1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세부요인2	스포츠참여 만족도	공공체육시설 사용 만족도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인당 체육예산
세부요인3	실제 운동 횟수 및 시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3.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계층적분석방법의 요인 간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주요요인 5개 수준, 그리고 세부요인 13개 수준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계층적분석방법의 쌍대비교는 두 개의 요인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두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총 1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요인 5개(10쌍) 및 세부요인 13개(20쌍)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1)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

<표 IV-18>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대상	시설	프로그램	인력	제도
대상	1	1	5	7	3
시설	1	1	5	7	3
프로그램	1/5	1/5	1	2	1
인력	1/7	1/7	1/2	1	1/3
제도	1/3	1/3	1	3	1

CR = 1.0

위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를 통해 계층적분석방법을 활용한 가중치 값을 계산하였으며(<표 IV-20> 참조), Saaty(1980)가 제시한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토대로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5개 요인의 일관성 기준인 1.12를 기준으로 해당 값을 초과하면 해당 쌍대비교 값을 재검토하여 기준보다 낮아질 때까지 재조정하였다.

<표 IV-19> 주요요인 간 쌍대비교 결과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대상	.372
1	시설	.372
3	제도	.119
4	프로그램	.089
5	인력	.047

2)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전문가들로부터 수집된 쌍대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각 주요요인 내 세부요인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IV-20>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스포츠참여 만족도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1	6	5
스포츠참여 만족도	1/6	1	1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1/5	1	1

CR = 0.4 (기준: 0.58)

<표 IV-21> 주요요인(대상)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732
2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138
3	스포츠참여 만족도	.130

대상 요인에서는 스포츠참여 인구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운동시간 및 만족도와 같은 개인성이 강한 지표보다는 지역의 스포츠참여율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선택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IV-22>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1	7	3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1/7	1	1/2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1/3	2	1

CR = 0.3 (기준: 0.58)

<표 IV-23> 주요요인(시설)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682
2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216
3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102

시설 요인에서는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소외계층 관련 지표는 선택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며, 만족도 관련 지표는 개인성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4>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1	3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1/3	1

CR = 0.0

<표 IV-25> 주요요인(프로그램)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750
2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250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스포츠 바우처가 낮게 나타났는데, 스포츠 바우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소외계층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6>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1	7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7	1

CR = 0.0

<표 IV-27> 주요요인(인력)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875
2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25

인력 요인에서는 1인당 스포츠 지도자의 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행정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났는데, 스포츠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스포츠 행정인력의 중요함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8>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행렬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1인당 체육예산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1	1	6
1인당 체육예산	1	1	7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1/6	1/7	1

CR = 0.3

<표 IV-29> 주요요인(제도)의 세부요인 간 쌍대비교 가중치 산출

순위	요인 명	가중치
1	1인당 체육예산	.476
2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452
3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및 조례	.072

제도 요인에서는 1인당 체육예산, 그리고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의 비율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스포츠복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이 핵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표 IV-19>부터 <표 IV-29>까지 주요요인 및 세부요인별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출된 스포츠복지지수의 전체 요인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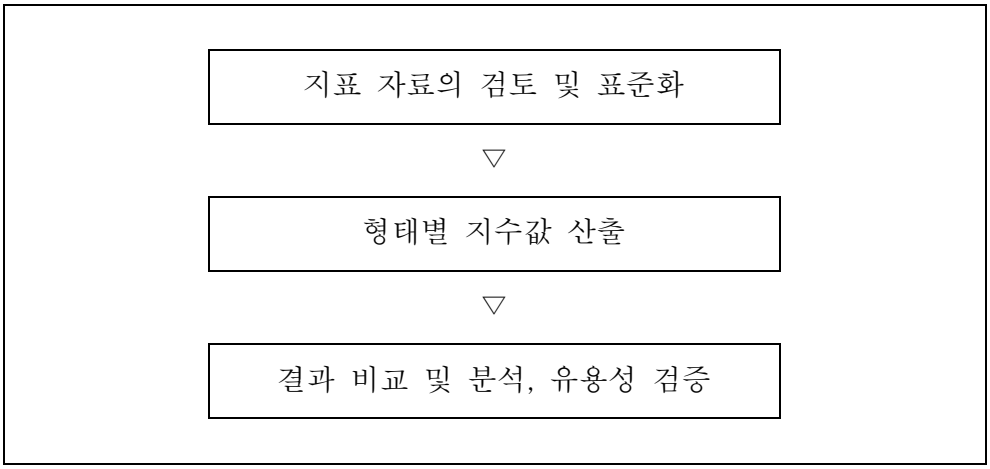
<표 IV-30>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계층적분석방법)

주요요인	가중치 (A)	세부요인	가중치 (B)	최종 가중치 (A*B)
대상	.372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732	.272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138	.051
		스포츠참여 만족도	.130	.048
시설	.372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682	.254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216	.080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102	.038
프로그램	.089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750	.069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250	.021
인력	.047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875	.041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25	.006
제도	.119	1인당 체육예산	.476	.057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452	.054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072	.009
계	1.000	-	5.000	1.000

4. 스포츠복지지수의 적용 및 유용성 검증

스포츠복지지수를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 13개 세부요인에 대입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표 자료를 검토 및 표준화하여 지역별 스포츠복지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2) 동일가중치 및 델파이조사 중요도 값을 적용한 다른 형태의 타당성 있는 지수와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모형의 타당도 등을 검토하였다. (3) 스포츠복지지수를 다른 인구통계학적 지표, 지역지표 등과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IV-3>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 검증 절차



1) 지표 자료의 검토 및 표준화

스포츠복지지수의 13개 세부요인에 적용될 지표 자료를 검토하였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조사된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되, 실제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의미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표현하는 바가 유사한 지표로 대체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표의 목록 및 원자료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IV-31> 스포츠복지지수의 세부요인별 적용 지표

주요요인	측정 항목	정의	평균	표준편차
대상	주1회 운동참가 인구 비율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65.16	8.84
	1회 평균 참여시간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76.33	7.22
	스포츠참여 만족도	스포츠참여 만족도	3.89	0.13
시설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3.95	2.45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수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4	2.74
	활동하지 않는 사람의 불만족(역) + 활동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39.49	13.06
프로그램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0.03	0.01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1인당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0	=0

인력	1인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0	=0
	전문 행정인력 수	1인당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2.292	8.277
제도	1인당 체육예산	1인당 체육예산	255243.4	199933.6
	예산 대비 체육예산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1.48	0.29
	법규의 유무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이진 자료	

● =0 : 0에 근사, (역) : 역코딩

2) 가중치 산출 방법별 스포츠복지지수 값 비교

계층적분석방법을 통하여 산출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가중치 및 델파이조사 중요도 가중치를 적용한 모형과 지수값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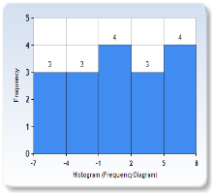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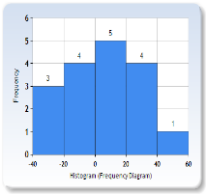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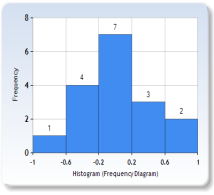
<표 IV-32> 가중치 산출 방법별 스포츠복지지수 값 비교

	동일 가중치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
서울	-1.69	-10.53	-0.19
부산	-6.53	-39.21	-0.47
대구	-0.85	-5.88	-0.15
인천	-4.53	-26.51	-0.31
광주	4.76	25.84	-0.05
대전	2.43	12.78	-0.27
울산	1.95	11.73	0.04
세종	-5.08	-29.18	-0.79
경기	0.77	5.45	0.24

강원	5.49	32.32	0.34
충북	2.27	13.94	−0.16
충남	−1.34	−7.51	−0.08
전북	7.61	46.19	0.89
전남	5.60	33.46	0.95
경북	5.15	30.59	0.44
경남	−1.82	−10.34	0.12
제주	0.81	3.85	−0.43

■ 붉은 색: 전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이상의 값
■ 푸른 색: 전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미만의 값

<표 IV−33> 가중치 산출 방법의 비교

	동일 가중치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
평균	0.88	5.12	0.01
표준편차	3.98	23.51	0.45
왜도	−0.18	−0.15	0.65
첨도	−0.81	−0.74	0.37
범위	14.14	85.40	1.74
최소값	−6.53	−39.21	−0.79
최대값	7.61	46.19	0.95
분포			

각 가중치 산출 방법별로 스포츠복지지수의 값을 계산하였다(<표 IV−34> 참조). 각 방법별로 스포츠복지지수값이 높게 나온 지역(전북,

전남)과 낮게 나온 지역(부산, 세종)이 대체로 일치함으로써 계층적분석방법의 가중치가 지역별 자료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중치 방법별로 결과값의 분포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왜도, 첨도, 범위,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어느정도 정규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스포츠복지지수의 계층적분석방법을 활용한 모형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요요인별 스포츠복지지수 값 비교

스포츠복지지수를 각 주요요인별로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각 주요요인 수준에서의 스포츠복지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요인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체 스포츠복지지수의 경우에는 시각적 편의를 위하여 100점을 중앙 기준점으로 조정한 후에 지수값의 배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다.

<표 IV-34> 가중치 산출 방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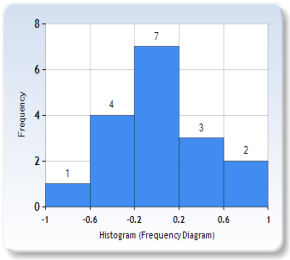
	기존 지수값	변형 지수값
(예시) 지역 A	a	100+10*a
서울	-0.19	98.1
경기	0.24	102.4
전북	0.89	108.9

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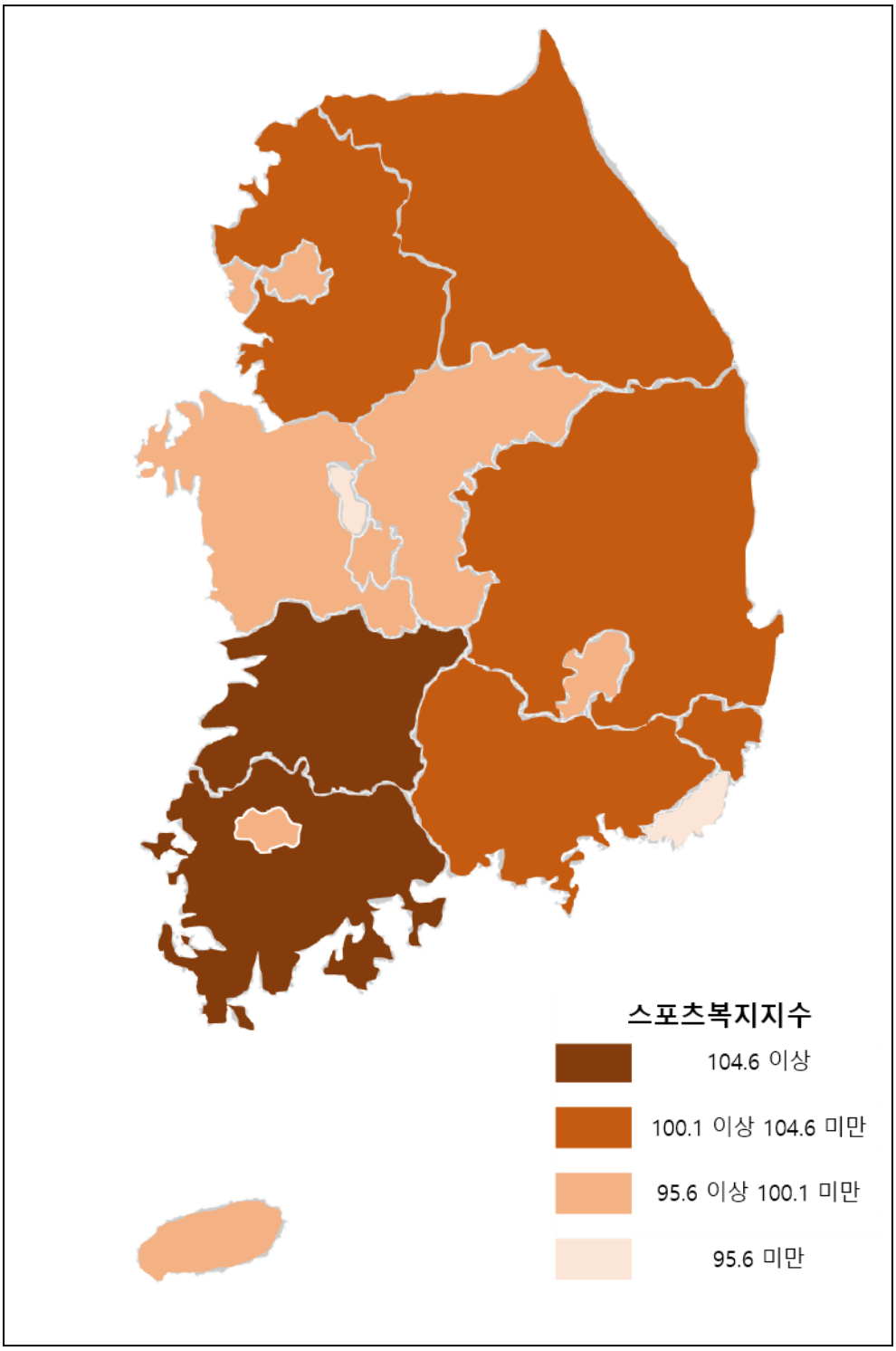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복지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전라남도가 1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종시가 9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값에 가까운 울산(100.4)이 나타나기 전 6위까지 모두 시보다 도 단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V-35>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전체)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전남**	**109.5**	10	대구	98.5
2	**전북**	**108.9**	11	충북	98.4
3	경북	104.4	12	서울	98.1
4	강원	103.4	13	대전	97.3
5	경기	102.4	14	인천	96.9
6	경남	101.2	15	제주	95.7
7	울산	100.4	16	**부산**	**95.3**
8	광주	99.5	17	**세종**	**92.1**
9	충남	99.2			

스포츠복지지수 단계 구분 *단위: 1 표준편차		
지수 범위	광역자치단체 수	
104.6 이상	2	
100.1 이상 104.6 미만	5	
95.6 이상 100.1 미만	8	
95.6 미만	2	

<그림 IV-4>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전체)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대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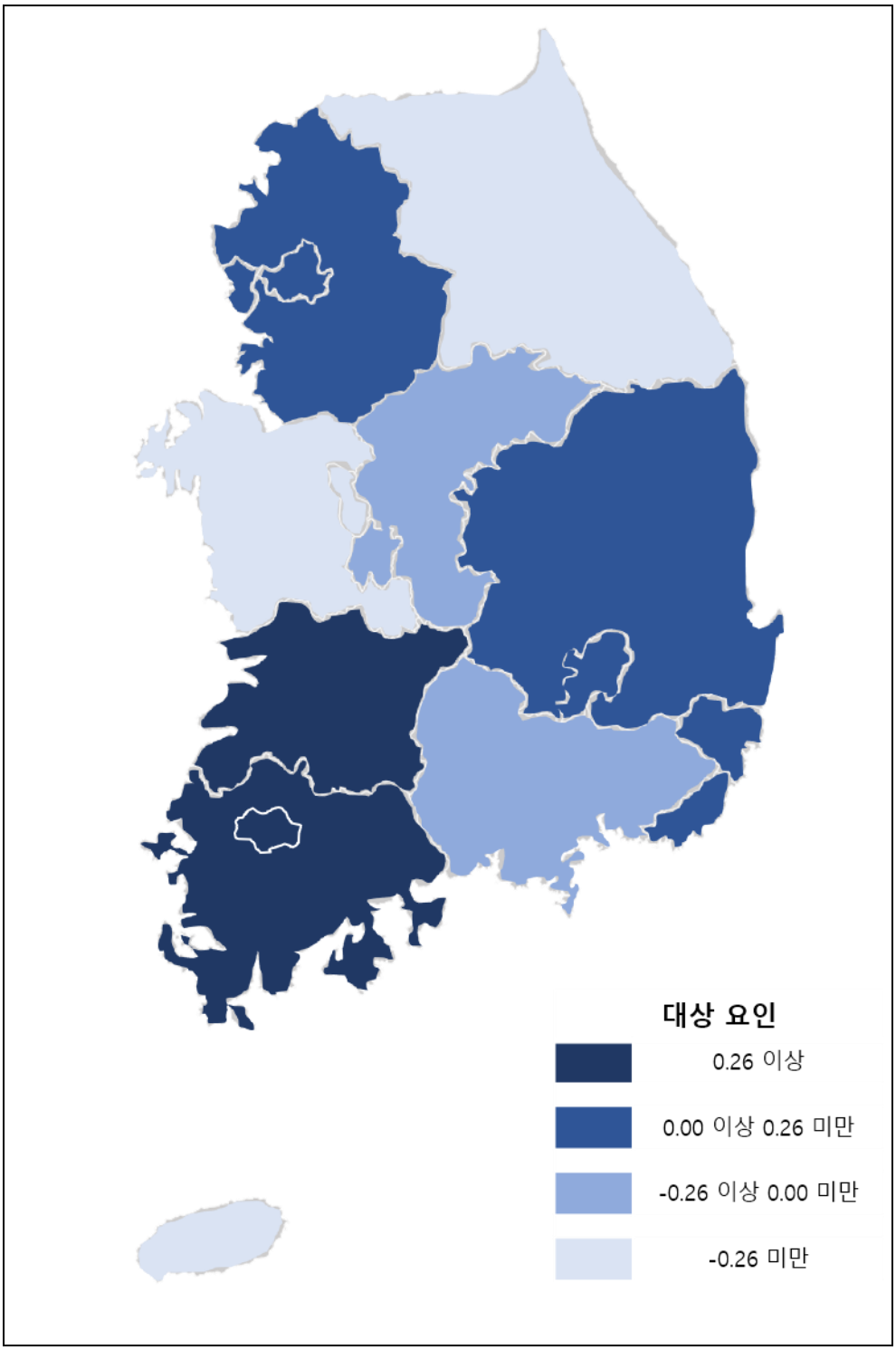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상 요인 스포츠복지지수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전북(0.5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0.4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 요인 점수는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에서 압도적 강세를 보였고, 영남권(대구, 경북, 울산)이 그 뒤를 이으며 대체로 남쪽 시도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상 요인은 세부요인1(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의 비중이 73%로 매우 큰데, 해당 요인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의 비율이 충북(46.4%), 제주(43.0%), 강원(41.7%) 순으로 나타나면서 대상 요인 점수를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6>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대상 요인)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전북	0.51	10	서울	0.02
2	광주	0.28	11	경남	0.00
3	전남	0.26	12	충남	−0.06
4	대구	0.23	13	대전	−0.13
5	경북	0.22	14	세종	−0.27
6	울산	0.10	15	강원	−0.42
7	경기	0.07	16	제주	−0.42
8	부산	0.04	17	충북	−0.45
9	인천	0.04			

<그림 IV-5>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대상 요인)



③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시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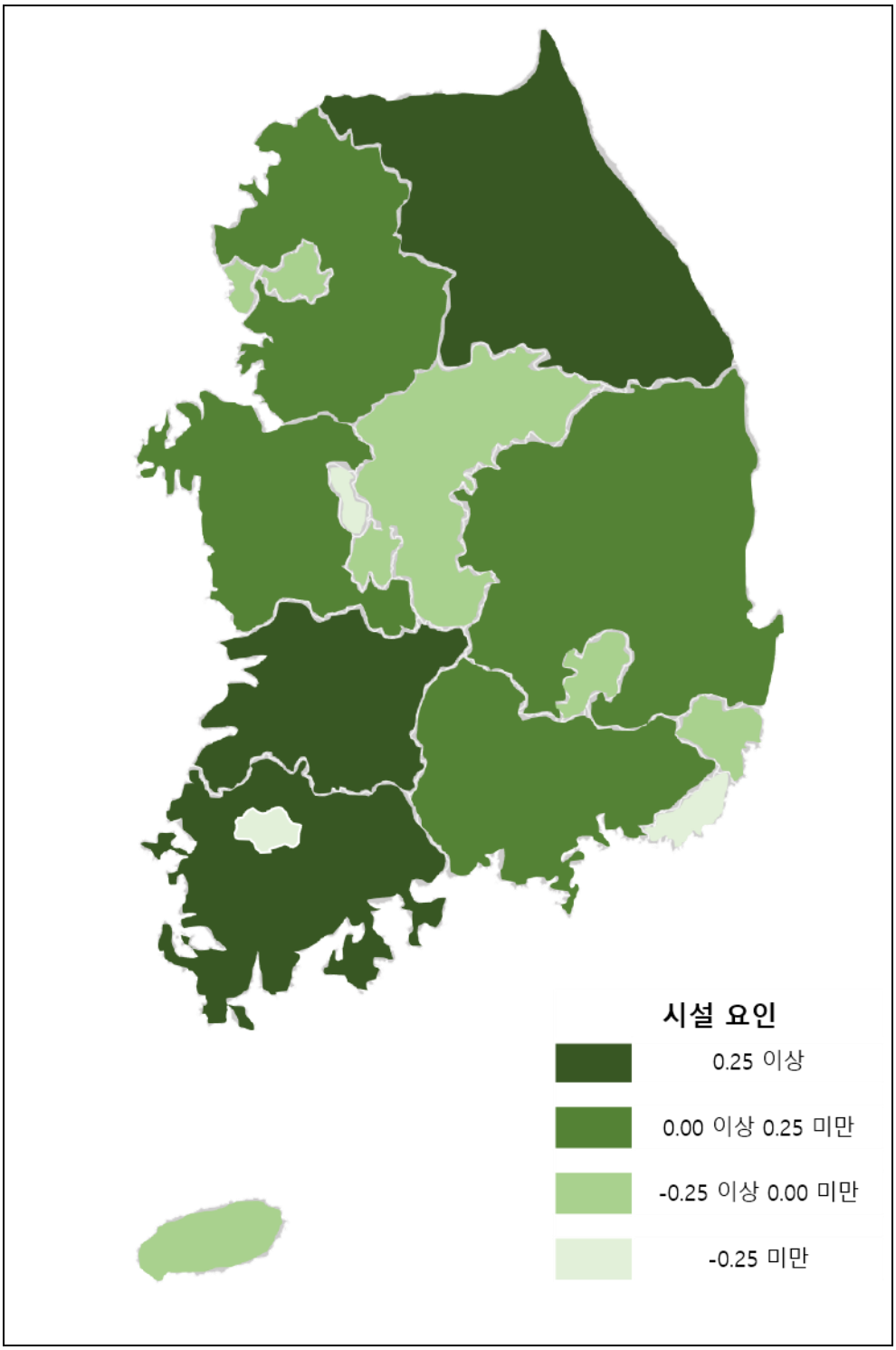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요인 스포츠복지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전라남도가 0.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이 −0.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남, 강원, 전북, 경기 등이 크게 앞서 나가면서 순위상으로는 도가 시를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시설 요인은 세부요인1(시도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의 비중이 68%로 매우 큰데, 해당 요인을 '시도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도에 위치한 체육시설들이 면적 상으로 시에 위치한 체육시설보다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IV−37>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시설 요인)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전남**	**0.55**	10	울산	−0.10
2	**강원**	**0.37**	11	인천	−0.13
3	**전북**	**0.35**	12	서울	−0.13
4	경기	0.20	13	대전	−0.17
5	충북	0.14	14	대구	−0.25
6	경북	0.09	15	**세종**	**−0.30**
7	경남	0.07	16	**광주**	**−0.30**
8	제주	0.00	17	**부산**	**−0.32**
9	충남	−0.05			

<그림 IV-6>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시설 요인)



④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프로그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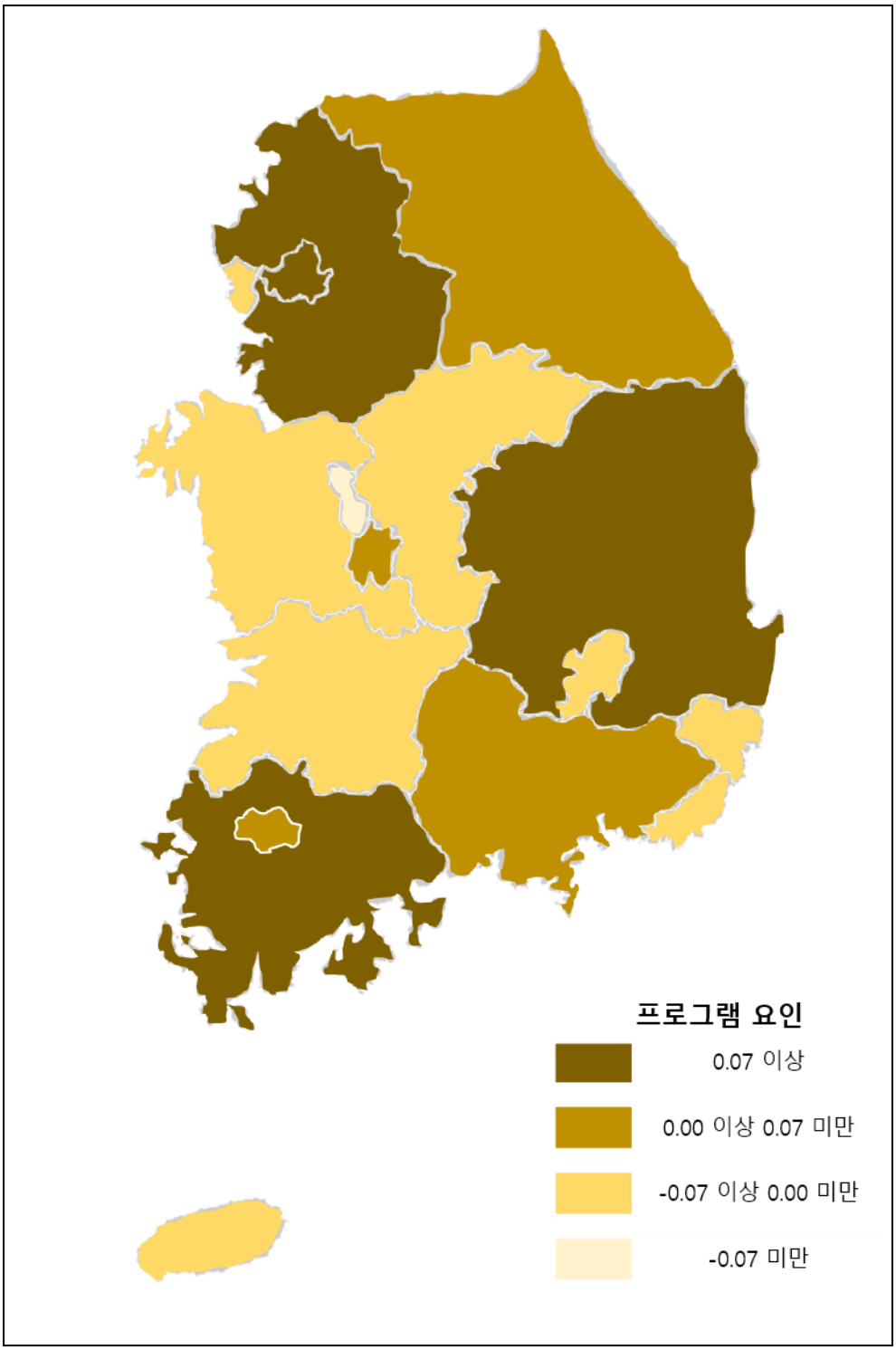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요인 스포츠복지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경기도가 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종시가 −0.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순위가 높았는데, 1인당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수가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요인은 세부요인1(1인당 스포츠 프로그램 수)의 비중이 75%로 매우 큰데, 이에 서울과 경기가 표준점수로 2에 가깝게 나타났다. 다만, 프로그램 요인에 대한 전체 가중치가 9%로 낮아서 최종 스포츠복지지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8>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프로그램 요인)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경기**	**0.11**	10	전북	−0.01
2	**서울**	**0.10**	11	대구	−0.02
3	**경북**	**0.07**	12	충남	−0.02
4	**전남**	**0.07**	13	부산	−0.04
5	경남	0.06	14	인천	−0.06
6	강원	0.03	15	제주	−0.07
7	광주	0.00	16	울산	−0.07
8	대전	0.00	17	**세종**	**−0.15**
9	충북	−0.01			

<그림 IV-7>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프로그램 요인)



⑤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인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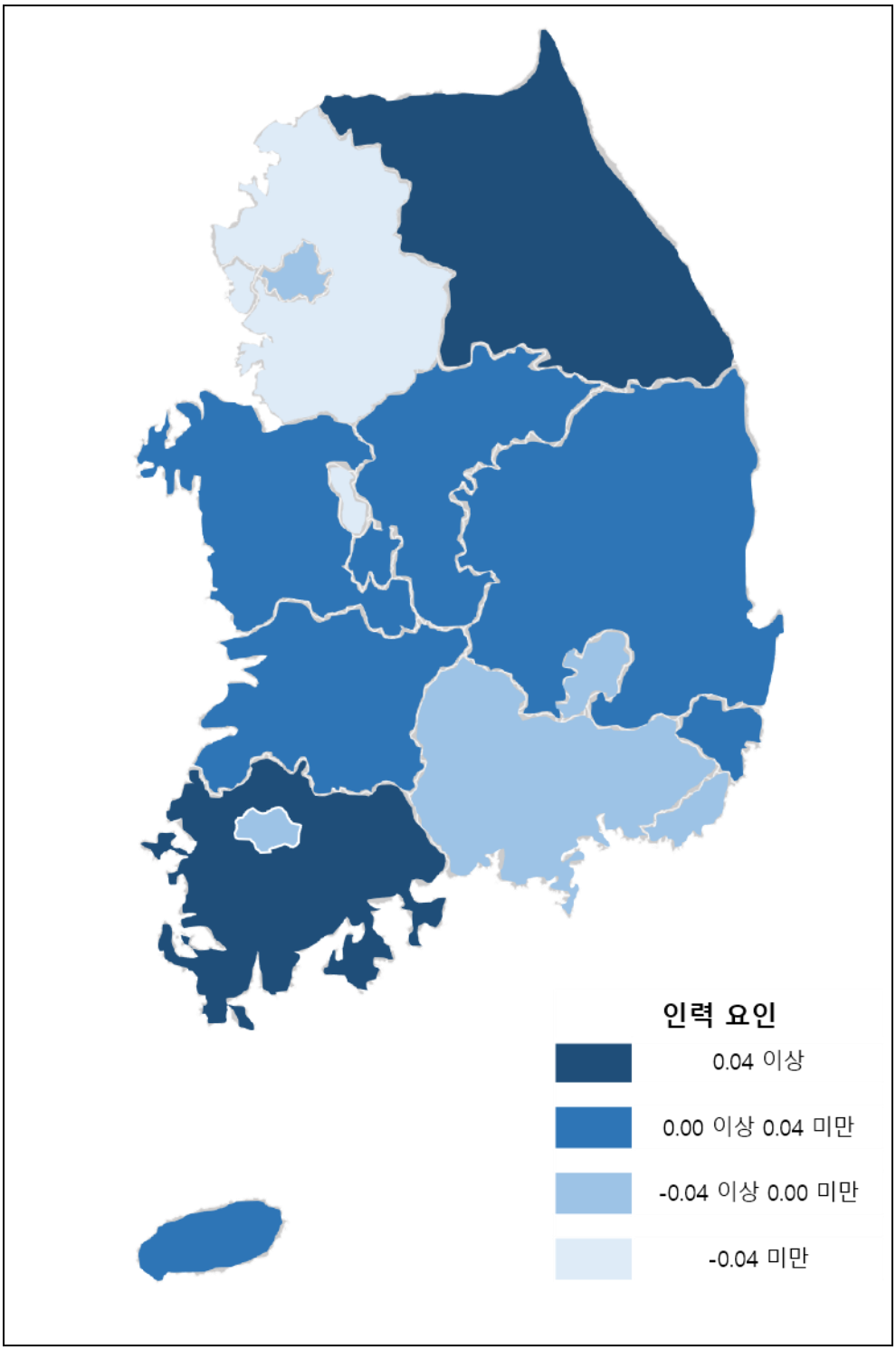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요인 스포츠복지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강원도가 0.08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종시가 −0.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력 요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만으로 보면 서울(1.92)과 경기(1.99)의 z-score가 압도적으로 높고,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오는 순서였으나, 1인당 값을 구하기 위하여 총 인구수로 나누면서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강원과 전남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충분한 숫자를 대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IV-39>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인력 요인)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강원**	**0.08**	10	광주	−0.01
2	**전남**	**0.08**	11	경남	−0.01
3	대전	0.03	12	대구	−0.03
4	충북	0.03	13	서울	−0.04
5	제주	0.02	14	부산	−0.04
6	경북	0.02	15	**인천**	**−0.05**
7	전북	0.02	16	**세종**	**−0.05**
8	울산	0.01	17	**경기**	**−0.06**
9	충남	0.00			

<그림 Ⅳ-8>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인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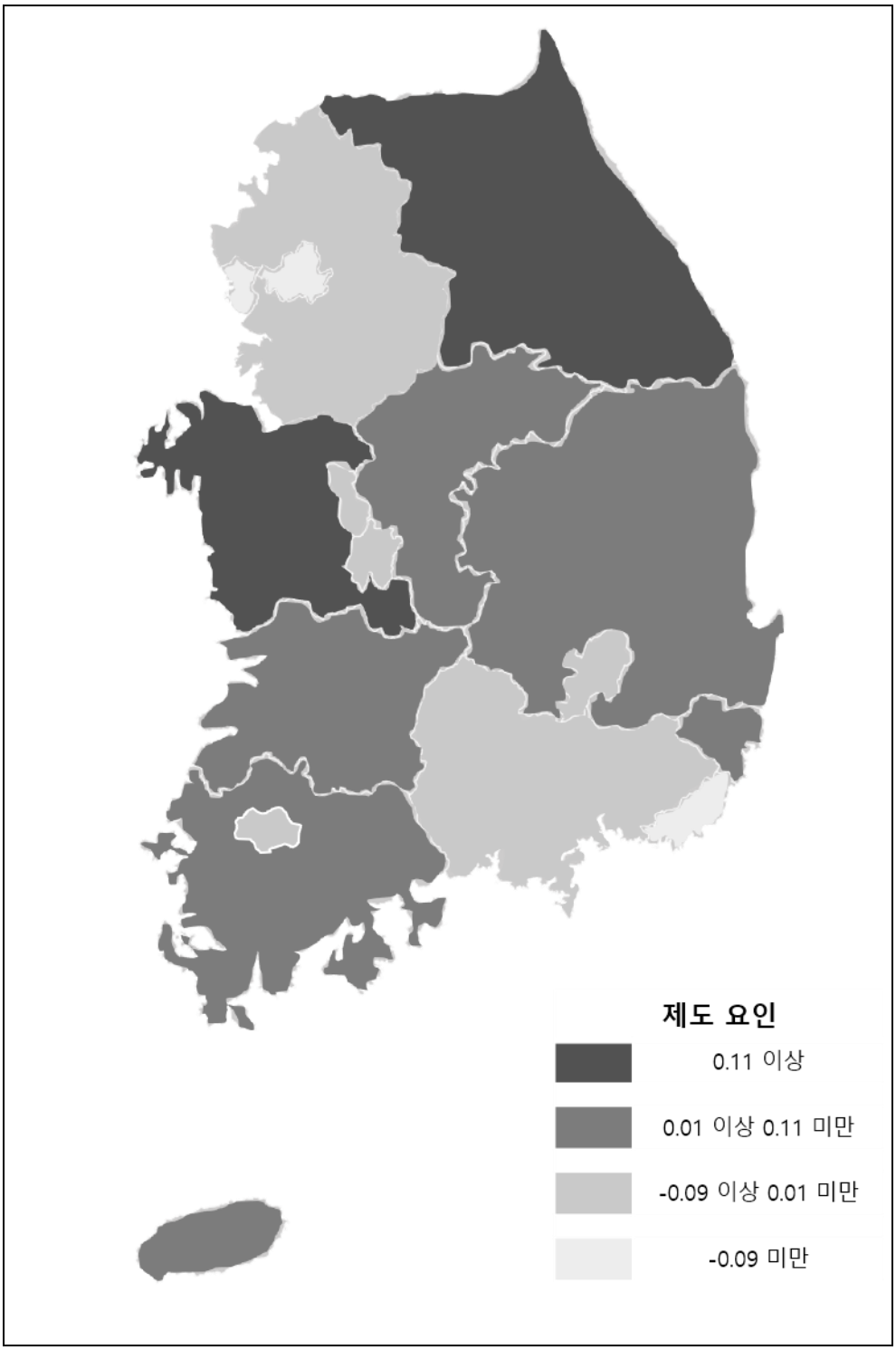
⑥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제도 요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요인 스포츠복지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강원도가 0.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0.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가 나란히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순위가 높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와 거의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제도 요인)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지수값
1	**강원**	**0.27**	10	경남	−0.01
2	**충북**	**0.13**	11	세종	−0.02
3	울산	0.10	12	광주	−0.03
4	충남	0.05	13	대구	−0.08
5	제주	0.05	14	경기	−0.08
6	경북	0.04	15	**인천**	**−0.11**
7	전북	0.03	16	**부산**	**−0.11**
8	전남	0.01	17	**서울**	**−0.13**
9	대전	−0.01			

<그림 IV-9>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복지지수 비교(제도 요인)



4)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 검증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복지지수의 결과를 분석하고, 기타 인구통계학적 지표, 건강 지표, 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해당 결과에 따라 지역별 스포츠복지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① 특별·광역시와 도 간 스포츠복지 격차(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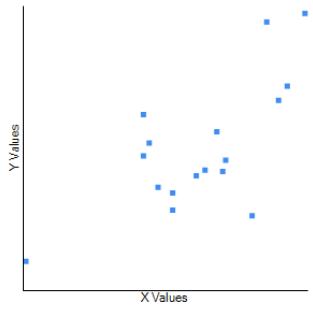
지역 스포츠복지지수에서 총 9개 특별·광역시(평균 97.09)와 8개 도(평균 103.43) 간 유의미한 수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별·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광역시(100.4), 광주광역시(99.5), 대구광역시(98.5)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도는 전라남도(109.5), 전라북도(108.9), 경상북도(104.4)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남도(99.2)와 충청북도(98.4)는 도 중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스포츠복지지수의 5개 주요요인 모두에서 도가 특별·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 요인에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지역민들의 참여도 전반을 나타내는 대상 요인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스포츠참여 정도에 대한 시도 간 격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별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

지역별 스포츠복지지수와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높은 스포츠복지 수준이 필요할 것인데(김권일 외, 2010),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현황의 지역별 평균연령과 스포츠복지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현재 스포츠복지 정책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IV-10> 평균연령(X)과 스포츠복지지수(Y)의 상관관계



X 값	Y 값	R	r-square
평균 43.271 SSx 88.055	평균 0.007 SSy 3.369	0.70	0.48

평균연령은 전북(46.8세), 경북(46.2세), 강원(45.9세)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스포츠복지지수는 전북(109.5, 1위), 경북(104.4, 3위), 강원(103.4, 4위)로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별 평균연령과 스포츠복지지수의 상관관계는 r=0.70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노인스포츠와 관련한 스포츠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김양례, 2012; 홍계희 외, 2017)에 대하여 2013년에

출범한 ‘국민체육100’ 등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의 스포츠복지에 대하여 현 정책 방향에 수치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스포츠복지지수는 시설 요인에서 전북(0.35, 3위), 경북(0.09, 6위), 강원(0.37, 2위)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현재 고령의 인구 대상으로 스포츠시설은 적절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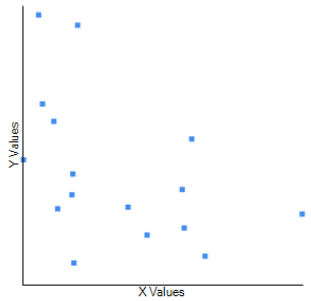
반면, 경제적 생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적 젊은 지역인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세종시에 스포츠복지 환경이 미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은 40대부터 건강과 체력에 필요성을 급격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개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적으로 건강의 이상을 느끼고 체력에 신경을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젊은 층의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노출도가 적은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라, 해당 지역의 스포츠복지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체육시설적 보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지역별 기대수명지표와의 상관관계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기대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Monma, Takeda 외, 2019; Reimers 외, 2012)에 따라 스포츠복지지수와 기대수명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일수록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높은 스포츠복지 수준이 필요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연간 지역별 기대수명지표과 스포츠복지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현재 스포츠복지 정책이 지역별로 올바르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IV-11> 기대수명지표(X)와 스포츠복지지수(Y)의 상관관계



X 값	Y 값	R	r-square
평균 79.341 SSx 10.252	평균 0.057 SSy 2.694	-0.46	0.21

기대수명지표는 서울(81.3세), 제주(80.28세), 경기(80.14세), 대전(80.06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스포츠복지지수는 서울(98.1, 12위), 제주(95.7, 15위), 경기(102.4, 5위), 대전(97.3, 13위)로 전반적으로 반대 경향을 띄었다. 기대수명지표와 스포츠복지지수의 상관관계는 r=-0.46으로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기대 수명이 낮게 집계된 지역을 대상으로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적절히 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문헌고찰을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주요요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구축하였다. 셋째로,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스포츠복지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로, 개발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적용하여 지수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다른 형태의 요인 가중치를 적용한 스포츠복지지수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복지지수와 기타 외부 요인 사이의 관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스포츠복지지수의 내용적 기준이 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다룬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후 해당 논의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

에서 활용할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최종 도출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김사엽(2006)은 “연령, 성별,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라고 하였고, 심규성(2012)은 스포츠복지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스포츠 소외계층과 일반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복지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경험 및 직관을 활용하여 담론 분석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정립한 개념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이 스포츠복지지수의 측정 범위를 담고 있어야 함에 따라, 대상, 목적, 수단 단위로 보다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복지, 스포츠사회학 및 특수체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스포츠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스포츠복지지수 개발에 맞는 개념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들로부터 제시된 개념들을 문장성분 단위로 종합 및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

노용구(2015)는 체육학, 사회복지학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 총 3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 영역,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스포츠복지란 개인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적으로

유사하나,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가 정부의 주도로 인해 갖추게 되는 사회적 성격 및 법제화를 고려하여 권리를 강조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가 주는 개인의 효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복지와 대등 병렬한 위치에서 스포츠복지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복지의 형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복지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시류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다.”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개념 도출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서 도출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영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존의 스포츠복지 개념에서 나아가 스포츠복지에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스포츠복지가 현장에서 널리 다뤄지고 이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복지를 요인별로 분석하여 보고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스포츠복지 정책 각각에 대한 개별적 평가 및 보고는 존재하지만, 스포츠복지가 강조되는 화제성에 비해 스포츠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우리 사회의 스포츠복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복지를 요인별로 측정함으로써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복지지수를

5개 주요요인 및 13개 세부요인 수준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대상 지역별로 스포츠복지 수준이 어떠한 항목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해 산출한 자료가 지역별로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스포츠복지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지역 간 스포츠복지 수준의 차이 전반을 파악하고, 외부 요인과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스포츠복지지수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포츠복지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존재해왔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스포츠복지 혹은 특정 스포츠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복지 구성체계 내부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작은 영역의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 스포츠복지라는 큰 개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에 와 있으며 스포츠복지가 외부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에 대한 분석, 평균연령과 기대수명과 같은 외부 지표와 스포츠복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스포츠복지지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종합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복지 관련 정책 마련 및 평가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된 스포츠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스포츠복지의 실제를 잇는 교두보에 초석을 놓는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스포츠복지가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가 치안과 생계보장만을 의미하던 전통적 의미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도록 그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스포츠가 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의 스포츠복지는 최근까지도 개념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담론의 형태로만 존재하였고, 이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정책 평가에 어려움을 낳았다. 향후 스포츠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스포츠복지의 개념, 스포츠복지의 주요요인,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및 요인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스포츠복지지수를 개발하고, 개발된 스포츠복지지수를 기존에 존재하는 체육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전문가

델파이조사, 계층적분석방법이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에 따라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서비스이다.”로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스포츠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간주되며,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 또는 실현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복지 영역으로서 자리한다.

둘째,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는 주요요인 5개, 세부요인 13개로 도출되었다. 각 주요요인 및 세부요인에 대한 가중치와 전체 요인구조는 아래와 같다.

<표 VI-1>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분류	주요요인	가중치 (A)	세부요인	가중치 (B)	최종 가중치 (A*B)
대상차원	대상	.372	지역 스포츠참여 인구 및 비율	.732	.272
			실제 운동 시간 및 횟수	.138	.051
			스포츠참여 만족도	.130	.048
복지서비스차원	시설	.372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면적	.682	.254
			소외계층 및 장애인 시설 수	.216	.080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102	.038
	프로그램	.089	1인당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	.750	.069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 수	.250	.021

	인력	.047	1인당 스포츠 지도자 수	.875	.041
			스포츠 전문 행정인력 수	.125	.006
제도차원	제도	.119	1인당 체육예산	.476	.057
			총 예산 대비 체육예산비율	.452	.054
			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법규	.072	.009
계		1.000	-	5.000	1.000

셋째, 스포츠복지지수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결과, 평균 100, 표준편차 4.45으로 설정되었으며, 전라남도(109.5), 전라북도(108.9), 경상북도(104.4), 강원도(103.4), 경기도(102.4)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세종특별자치시(92.1), 부산광역시(95.3), 제주특별자치도(95.7), 인천광역시(96.9), 대전광역시(97.3)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각 주요요인별 주요 순위는 아래와 같다.

<표 VI-2> 주요요인별 스포츠복지지수 순위

주요요인	높은 순			낮은 순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대상	**전북 (0.51)**	광주 (0.28)	전남 (0.26)	**충북 (−0.45)**	제주, 강원 (−0.42)	
시설	**전남 (0.55)**	강원 (0.37)	전북 (0.35)	**부산 (−0.32)**	광주, 세종 (−0.30)	
프로그램	**경기 (0.11)**	서울 (0.10)	경북 (0.07)	**세종 (−0.15)**	울산, 제주 (−0.07)	
인력	**강원, 전남 (0.08)**		대전, 충북 (0.03)	**경기 (−0.06)**	세종, 인천 (−0.05)	
제도	**강원 (0.27)**	충북 (0.13)	울산 (0.10)	**서울 (−0.13)**	부산, 인천 (−0.11)	

넷째, 스포츠복지지수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발전이 집중되는 특별·광역시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든 주요요인 수준에서 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5$), 이러한 차이는 체육환경 중에서도 시설적인 차이로부터 기인하였다. 평균 연령 및 기대수명과 스포츠복지지수를 연결하였을 때, 각각 $r=0.70$과 $r=-0.46$으로 강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정적/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높은 지역일수록 스포츠복지지수가 높게 나왔으며, 기대수명은 낮은 지역일수록 스포츠복지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 회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포츠복지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강 예방의 차원 및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는 스포츠복지 사업의 분배 및 진행에 대하여 큰 틀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스포츠복지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스포츠복지의 향상으로써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 연구의 모형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중요한 복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복지를 지수의 형태로 계량화함으로써, 대상 지역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한계점에 대하여 후속 연구에서 고려 및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스포츠복지의 요인을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었다. 스포츠복지에 대한 지역별 통계자료가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되거나, 세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5개년 이상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스포츠복지가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곳)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국가통계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보개방 방침에 따라 향후 스포츠복지 관련 기초자료가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세부 지역 단위의 비교, 그리고 대상 지역의 시계열적 비교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의 개념, 스포츠복지지수의 요인구조 및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델파이조사와 계층적분석방법이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연구의 결과가 전문가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각 델파이조사의 단계 및 계층적분석방법의 활용에 있어 총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조사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이 바뀌었을 때 지수의 세부요인 및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범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자 요인 후보의 숫자를 목표치의 8배 이상 수집하였다. 선정 과정에서도 기준점수를 높게 설정하여 전문가들의 확신이 강하게 적용된 요인만을 사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 모형에 추가할 수 있는 주요요인별 세부요인을 모색하여 개수를 늘린다면 지수의 불안정성이 줄어 더 발전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강무섭. (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KEDI] 교육개발.*

강현수. (2008). AHP 방법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Decision Science.

권순용. (2016). '생활체육 영역의 복지적 관점 이해'에 대한 토론. 국민체육진흥세미나, 83-84.

기선영, & 이미숙. (2014). 스포츠잠재력지수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탤런트 탐색 가능성.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1441-1450.

김경배. (2011). 스포츠건강의학: 대사증후군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스포츠과학, 114, 76-81.

김권일, 김미량, & 이제홍. (2010).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스포츠복지모델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1), 197-205.

김병욱. (2015). 델파이 (Delphi) 분석방법. 킴스정보전략연구소.

김상겸. (2007).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0(1), 125-147.

김사엽. (2006). 스포츠사회복지론. 21세기교육사.

김양례. (2012). 노인시설의 체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원.

김영미, 최영준, & 안상훈. (2010).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19-253.

김정준, & 박일혁. (2020). AHP를 활용한 축구선수 선발 방법 비교 연구.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3), 63-76.

김태일. (1999). 일반논문/수리적 기법에 의한 평가모형체계의 가중치 부여방식에 관한 논의. 한국행정학보, 33(4), 243-258.

김형수. (1996).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방법론과 활용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6-22.

김홍배, 김자인, & 유승남. (2012). 지역 간 고령자 이동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1), 49-64.

김흥태, & 김태동. (201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방향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8), 411-424.

나준엽, 정남수, & 이정재. (2005). 정보계측기법을 응용한 공공시설의 평가지표 중요도산정 모의 개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25-32.

노용구. (2015).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노용구, 여경아, & 권연택. (2017). 스포츠복지의 개념정립과 모형 제안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6(6), 35-48.

대한장애인체육회. (2009).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류방란. (2010).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류현승, 이용호, & 이윤수. (2018). 소외계층의 스포츠복지 제약척도 개발. 한국웰니스학회지, 13(2), 129-140.

모유선, 한상태, 연규필, & 강현철. (2015).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지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6), 2981-2990.

문화체육관광부. (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세정. (2007). 스포츠 건강의학: 고혈압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스포츠과학, 98, 76-81.

박종권. (2009). 역대 정부의 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전두환정부에서 김대중정부까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희진, & 김민. (2015). 인문, 사회과학편: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의 스포츠거버넌스 지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3), 463-474.

송근원, & 이영. (2013). AHP 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29(2), 271-288.

심규성. (2012). 스포츠복지개념의 형성과정: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1, 55-74.

오연풍. (2011). 지방자치단체 체육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개발. 체육과학연구, 22(2), 1967-1977.

이기봉, 안양옥, 오정훈, 김윤희, 김양혁, & 박성배. (2015).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행복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4.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이은석, & 심규성. (2011). 한국의 스포츠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메타분석. 한국운동재활학회지, 7(1), 29-39.

이정학. (2007).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여가스포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5(1), 149-164.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7.

이희길, & 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임경희. (2006). 인문, 사회과학편: 스포츠 참여가 노인의 복지만족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1), 185-192.

정현우, & 김동현. (2020). 스포츠복지에서 통합적 관점의 의미 및 의의.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5, 73-89.

정혜진, & 김홍식. (2018). 스포츠복지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앤서니 기든스의 '제 3 의 길'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7(4), 83-101.

체육과학연구원. (2008). 스포츠복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체육과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8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최민철. (2020).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39(2), 145-162.

통계청(2009a). OECD 세계포럼의 이해 - 제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통계청.

통계청(2009b). OECD 세계포럼의 이해 - 제1권 역대 주요 발표문 발췌 · 요약집, 통계청.

장영식, 변용찬, 이삼식, 김태헌, 권태환, 남상호, ... & 김영호.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Ⅰ).

체육과학연구원(2008). 스포츠복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체육과학연구원

편현웅, 이기봉, 서성혁, & 박일혁. (2010). 한국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수행력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 탐색.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2(1), 49-6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2018 한국의 체육지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황수웅, 김정준, & 박일혁. (2019). 프로축구선수의 평점과 경기력 평가 점수체계의 비교.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1(2), 31-43.

홍계희, 서원재, & 이경수. (2017).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제 간 융합 모형: 스포츠 복지 케어 Active aging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2, 153-164.

홍성진, & 이기봉. (2017). 계층적분석방법 (APH: An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축구 경기력 평가 요인 가중치 산출.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9(1), 1-12.

Bauer, R. A. (1966). Social indicators.

Bell, S., & Morse, S. (2003). Learning from experience in sustainability.

Bergsgard, N. A., & Rommetvedt, H. (2006). Sport and politics: the case of Norway.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1(1), 7-27.

Carron, A. V., Widmeyer, W. N., & Brawley, L. R. (1985).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assess cohesion in sport teams: The 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7(3), 244-266.

Clemmer, R. (1974). Indicators and Statewide Assessment.

Converse, P. E., & Campbell, A. (Eds.). (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Russell Sage Foundation.

Cohen, J. (1968). Weighted kappa: nominal scale agreement provision for scaled disagreement or partial credit. Psychological bulletin, 70(4), 213.

Delbecq, A. L., Van de Ven, A. H., &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 and Delphi processes. Scott, Foresman,.

Donnelly, P. (2008). Sport and human rights. Sport in society, 11(4), 381-394.

Forman, E. H. (1983).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a decision support system. Proceedings of the IEEE Computer society.

García, B. (2006, April). The European Union and Sport, rescuing the nation-state. In ECPR Joint Sessions of Workshops (pp. 202-223).

Green, M., & Houlihan, B. (2006). Governmentality, modernization, and the "disciplining" of national sporting organizations: Athletic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Sociology of sport journal, 23(1), 47-71.

Grehaigne, J. F., Godbout, P., & Bouthier, D. (1997). Performance assessment in team sport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6(4), 500-516.

Hashim, H., Grove, R. J., & Whipp, P. (2008). Validating the youth sport enjoyment construct in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9(2), 183-194.

Heinemann, K. (2005). Sport and the welfare state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5(4), 181-188.

Houlihan, B. (2002). Sport, policy and politics: A comparative analysis. Routledge.

Ibsen, B., & Ottesen, L. (2006, April). Sport and welfare policy in Denmark. In ECPR Joint Sessions of Workshops, Nicosia, Cyprus (pp. 25-30).

Joint Research Centre-European Commission.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shing.

Keeble, J. J., Topiol, S., & Berkeley, S. (2003). Using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performance at a corporate and project lev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2-3), 149-158.

Land, K. C., & Spilerman, S. (1975). Social indicator models. Russell Sage Foundation.

Manly, B. F., & Alberto, J. A. N. (2016).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a primer. CRC press.

Monma, T., Takeda, F., Noguchi, H., Takahashi, H., Watanabe, T., & Tamiya, N. (2019). Exercise or sports in midlife and healthy life expectancy: an ecological study in all prefectures in Japan. BMC public health, 19(1), 1238.

Murry Jr, J. 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OECD. (2020). OECD Health Statistics.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Österlind, M. (2016). Sport policy evaluation and governing participation in sport: governmental problematics of

democrac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8(3), 347-362.

Pace, R. L. (2001). U.S. Patent No. 6,173,610.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Reimers, C. D., Knapp, G., & Reimers, A. K. (2012). Does physical activity increase life expectanc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2.

Saa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9-26.

Smith, A., & Leech, R. (2010). 'Evidence. What evidenc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school sport partnerships in North West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2(3), 327-345.

Thorborg, K., Branci, S., Nielsen, M. P., Langelund, M. T., & Hölmich, P. (2017). Copenhagen five-second squeeze: a valid indicator of sports-related hip and groin function.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1(7), 594-599.

Trail, G. T., & James, J. D. (2001). The motivation scale for sport consumption: Assessment of the scale's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sport behavior, 24(1).

Wackernagel, M., Schulz, N. B., Deumling, D., Linares, A. C., Jenkins,

M., Kapos, V., ... & Randers, J. (2002). Tracking the ecological overshoot of the human econom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9(14), 9266-9271.

Walter, G. R., & Wilkerson, O. L. (1998). Community sustainability auditing resource kif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British Columbia.

Abstract

Sports Welfare Index (SWI): development, validation, and application

Eugene Kwon

Sport Science,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ports Welfare Index (SWI) model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sports welfare in a regional term and verify its usefuln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and key factors of sports welfare was review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Second, we derive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through Delphi Method and construct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WI. Third, we develop the final SWI model by calcul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SWI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ourth, the developed SWI model was applied to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nationwide to calculate the index value, and the research method was validated by comparing it with the SWI model with different types of factor weights. Finally, we validate its usefulnes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WI and other demographic fac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procedure above, the SWI was derived from a total of five main factors: target (.372), facility (.372),

program (.089), workforce (.047) and institutions (.119), and 13 detailed factors. The model of the SWI applied with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was found to be more stable compared to the equal-weight model and the Delphi-importance model. The SWI applied to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nationwide resulted in an average of 100.0, standard deviation of 4.45. The index values were high in the order of Jeollanam-do (109.5), Jeollabuk-do (108.9), Gyeongsangbuk-do (104.4), Gangwon-do (103.4), and low in the order of Sejong (92.1), Busan (95.3), Jeju (95.7) and Incheon (95.7).

The SWI showed a difference between nine metropolitan cities (average 97.09) and eight provinces (average 103.43) ($p<0.05$). The SWI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verage age by region ($r=0.70$) and a life expectancy and negative correlation by region ($r=-0.46$), indicating that the sports welfare environment was well distributed to the appropriate region. However, this implies that Korean sports welfare services are distributed for treatment and post management rather than health preven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stribution and progress of sports welfare projects to reduce future medical costs and form a sound sports culture.

Keywords : Sports Welfare, Sports Welfare Index, Index Development, Delphi Metho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tudent Number : 2019-27169